

여서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7월
2024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하남풍산지점 거래고객
(주)인씨스 남현식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삼성동지점 거래고객
(주)팩스유엔에이 송민아 대표



IBK기업은행

글로벌 금융전문지 선정
대한민국 중소기업금융 최우수 은행 賞 3관왕 수상

ASIAMONEY

Best Bank For SMEs South Korea
아시아머니 선정, 중소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Global Finance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The Asian Banker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아시아뱅크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세계, IBK기업은행에 집중하다

변화를 이끄는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 04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고마운 공무원 은정 씨' 외
- 12 이달의 편지
'우리들의 공유 식탁' 외
-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주)인씨스 남현식 대표
-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주)팍스유엔에이 송민아 대표
- 80 코너 속 편지
'빛나간 사랑의 테니스공' 외
-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세 번의 결혼식
- 113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산 vs 바다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4년 7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용승우, 전현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콩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우리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요.
생각만 해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러지는 미담이 있으면
여성시대로 보내주십시오.
마음속 독소를 빼내고 쓰담쓰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마운 공무원 은정 씨

권현옥 | 경북 영주시 봉현면

저희는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있는 48년 차 부부입니다. 꼭 1년 전 일입니다. 사과나무에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히는 사이, 꽃잎 따기부터 시작해 열매 숙아서 씨앗이 될 것만 남겨두고 해 뜨면 적과하고 봉지 씌우기 작업까지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여름 긴긴해가 모자랄 만큼 일했습니다.

그렇게 밤낮없이 바쁜 일과를 알뜰히 마무리 지어놓고 일주일도 안 돼서 바둑알 크기만 한 우박이 쏟아지지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과는 이미 살구만큼 크게 자라서 사정없이 내려 때리는 우박을 고스란히 모두 맞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느님이 아속했습니다. 멸절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고 나무에 매달린 사과도 모두 깨지고 찌히고 상품 가치는커녕 깨진 부분은 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그저 낫 놓고 있을 뿐 어떤 대책도 떠오르지 않았습다. 세상에 이런 절망이 또 있을까요. 아침에 해 뜨는 것도 싫고 저녁 해가 지면 또 그것조차 우울하고 싫었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아깝고 속상하고 일주일 동안은 눈도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시간이 지난 뒤에 도저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리다 병나겠어. 올 한 해 일 안 하고 놀러 다녀온 셈치고 내년을 기약하고 힘냅시다. 내년에 잘하면 되지.”

그렇게 우리는 열흘 만에 훌훌 털고 일어나서 기운을 차렸습니다. 훗날을 기약하면서요.

그런데 또 얼마쯤 지난 뒤에 장맛비라고 하기엔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지더니 급기야는 산사태가 났습니다. 집 옆으로 산이 덮쳤습니다. 저 멀리 떨어진 큰 과수원도 삼분의 일 가까이 쓸려가고 말았습니다. 우박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산사태까지 겹치니 참고 버티던 남편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나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 소도시 면사무소 직원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현실에 그 담당 직원도 저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떡해요, 사모님. 하느님이 너무 야속합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같이 아파했습니다.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그 직원은 “식사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안부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집 주변 산사태 정리랑 과수원 쓸려 내려간 자리 등을 동네 주민과 도청 직원들의 협조로 대충 복구했습니다.

그 후로도 면사무소 직원 은정 씨는 음식도 사다 날라주고 책을 한 권씩 사가지고 와서는 “힘들 때 그림이랑 같이 읽으세요. 늘 기도하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저희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 덕에 저희는 조금씩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사십 년을 농사지며 살아왔지만 작년과 같은 그렇게 큰 재해는 처음 겪어봤기에 그 충격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작은 소도시의 천사 같은 공무원 은정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한참을 더 힘들어했을 겁니다.

작년 이맘때 봉지 씌우기를 끝으로 제일 힘든 적과 시기를 마치고

흘가분하게 가을에 추수할 날만 기다리던 게 생각나서 이 글을 적어 봅니다. 올해는 어떨지 또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골 동네 한 공무원의 친절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은정 씨는 책을 보내주고 커피 쿠폰도 가끔 보내면서 <사장님이랑 차 한잔하시고 쉬면서 일하세요> 문자가 옵니다. 요런 예쁜 공무원, 다른 지방에도 있을까요. 은정 씨 덕분에 세상은 아직도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농사일은 내 노력만이 아닌 하늘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 절망에 빠졌을 때,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다시 일어서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지를 은정 씨를 통해서 새로 배워갑니다.

아이 마음에 저장된 그날의 기억

황수진 | 경기도 안양시

저희 가족은 매년 5월이면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갑니다. 아이들이 제주 바다와 애플망고 빙수를 한 번 경험한 이후 다른 여행지는 마다 하고 제주도만 찾기 때문입니다. 제주 바다는 매년 최고의 놀이터가 돼주었고 저희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석가탄신일 연휴에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여행의 첫 일정은 가파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유명한 핫도그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5월의 가파도는 청보리로 유명하거든요. 가파도에서 자전거를 빌릴 때까지만 해도 싱글벙글 온 가족이 행복했습니다. 머리 위에 펼쳐진 드넓은 하늘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हां도그 가게를 눈앞에 두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인용 자전거가 문제였습니다. 자전거 앞쪽에는 남편이 뒤쪽에는 초등학교 1학년생인 둘째가 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아빠를 꼭 잡고 있던 둘째가 페달을 한 번 굴러보려고 다리를 내리던 찰나 남편이 페달을 힘차게 밟았고 둘째 아이의 왼쪽 다리가 자전거 타이어에 끼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은 아이의 다리를 빼려 안간힘을 쓰다 뜻대로 되지 않는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둘째 아이는 겁에 질려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근처 가게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허름한 중식당이었는데 마침 가게 확장 공사를 하는지 인부들 여럿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한달음에 장비를 가지고 달려와 자전거를 해체하고 아이의 다리를 빼주셨습니다. 아이의 다리는 살이 갈려 나가서 하얗게 움푹 패어 있었습니다. 어찌나 속상하던지요. 저희는 아이를 업고 매표소로 달려갔습니다.

119에 연락하니 배편을 바꿔서 바로 나오면 운전항에 구급차를 대기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허둥지둥 가장 빠른 배편을 알아보느라 정신 없는 가운데 머리가 하얀 신사분이 유심히 지켜보시더니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인지 차분히 들으시더니 “매표소에는 응급 키트를 구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와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챙겨온 응급 키트 안에는 다양한 약품들이 있었고 신사분은 그것들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여기 좋은 거 다 있네.”

그리곤 생리식염수로 아이의 다리를 씻어 모래 같은 이물질들을 제

거하고 마지막에 압박 붕대를 감아 응급 처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응급실 안 가도 돼요. 내가 처치는 다 했어. 나 소아외과 전문 의예요. 오늘 항생제 처방 받고 내일 병원 가서 소독 받아요. 집이 안 양이예요? 그럼, 근처에 OO외과로 가요. 여기 화상 전문 병원이예요. 이건 마찰 화상이거든요.”

여기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다니, 요즘은 응급실에 가도 의사 선생님 보기 힘들다던데 부처님이 도우셨나 했습니다. 선생님은 공휴일이라 병원 외래 휴진으로 여기에 놀러 오신 듯했습니다. 천운이 겹친 것이었어요. 선생님은 급한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며 성함을 알려주셨고 저희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그분은 이름만 쳐도 사진이 뜨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저희는 안도감에 눈물만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제주도에 있는 와중에도 매일 편도 50km의 외상 전문병원에 가서 아이의 다친 다리를 소독하였고 아이는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아이지?”라고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쓰라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 저라면 일 년에 한 번 있는 가족여행에서 사고를 겪다니 난 운이 지지리도 없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그날을 운이 좋은 날로 추억하고 있다니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 모든 건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신 백홍규 교수님 덕분입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은 아이의 다리뿐만 아니라 아이의 마음까지도 참되게 치료해 주셨어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건강해진 다리로 조만간 아이와 함께 교수님 병원에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스물다섯 해 동행 - 응답하라 1999



[7000] 1999년 12월 30일 이동통신 개업하여 25년째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이던 아들이 결혼하고 취업하여 중년이 되었고 손자 손녀가 4명이나 됩니다. 25년 동안에 삐삐, PCS, 휴대폰으로 너무나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매장 내방 고객이 많지 않아서 라디오도 들을 수 있습니다.

[2801] 97년 IMF로 20년 잘하던 장사가 급 어려워지며 98년 외환위기까지 겹쳐 결국 99년에 빚까지 지며 가게를 남에게 넘기던 아픈 추억이 떠오릅니다. 남편과 그때 얼마나 울었던지 그 후 도배 일을 배워 앞만 보며 달리다 2년 전 이젠 힘에 부쳐 그 일도 그만두고 지금은 남편이랑 '사랑의 밥봉사' 다니고 있어요.

[9244] 1999년 저는 수영 강사였습니다. 그때 수영장 선생님들하고 강릉으로 놀러 갔었는데 강릉 도착해서 해수욕장에서 튜브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쓸려가는 모녀분을 수영장 동생하고 구해준 기억이 있네요.



[6715] 1999년 고3이었는데 그 당시 공부는 안 하고 노스트라다무스에 빠져 노스트라다무스의 책이란 책은 다 찾아봤어요. 어차피 종말이 올 텐데 무슨 공부냐 하면서 노스트라다무스 책만 봤는데 정작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너무 허무했어요. 결국 전 삼수해서 대학갔고요.

[9026] 1999년 20살이었는데 친구가 같이 해병대 동반 입대하려고 해서 친구 따라 지원했는데 친구는 신체검사에서 떨어지고 저만 합격해서 해병대 입대해서 엄청나게 고생했네요. 사실 저는 해병대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 12 우리들의 공유 식탁
- 15 사돈들의 여행 모임
- 20 자연 속으로 침병
- 23 어부바
- 26 상추 속엔 사랑이 있었다
- 29 부고장에 대한 예의
- 32 어른이 되는 순간
- 35 이직에 대한 고민
- 40 아빠가 살고 있는 세상
- 44 다시 봄이 된 사람들
- 49 누룽지
- 53 기억 지우기
- 56 고군분투
- 60 좋은 어른이란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우리들의 공유 식탁

김순자 | 경기도 부천시

매 주 월요일은 풍성하고 행복한 점심 밥상이 차려지는 날이다. 바로 공유 식탁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공유 식탁 멤버들은 하루 전날 서로의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확인하고 어떤 요리를 할 것인지 묻는다. 메뉴가 정해지면 각자 재료를 챙겨서 정해진 장소에 모인다.

우리들의 공유 식탁에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 첫째, 식재료는 반드시 냉장고에 있던 것을 활용하되 그 재료는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둘째, 농사로 얻은 재료는 함께 다듬어 요리하고 쌀 한 톨도 소중히 여기는 농부의 마음으로 잔반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기후환경도 살리고 근검절약하는 소비생활이니 그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자랑할 만한 밥상이다.

이번 요리에 사용될 주재료는 제주도에서 공수해 온 황게, 수제 두



부 교실서 가져온 콩비지, 냉동실에 잠자고 있던 삼치다. 황게로 만든 양념게장이 오늘의 메인 요리! 거기에 김치를 썰어 넣은 비지찌개와 무를 깔고 조리된 삼치찜에 잘 익은 김치 그리고 까만 눈을 반짝거리는 콩장이 보조 출연했다. 이 정도면 더할 나위 없이 푸짐하고 화려하다. 주부 경력 합산 135년의 노하우가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 공유 식탁의 가장 큰 매력이다.

우리 식탁의 고정 멤버를 소개하자면 일명 S. J. K. 삼총사다. 왕언니 S가 자기 집에 우리를 초대해 주어서 시작되었다. 사실 세 사람 모두 평소에는 각자 혼밥을 한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끼라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이 주간 행사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일상인 것이다.

공유 식탁의 매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3인 3색으로 멤버들의 손맛이 저마다 다르다. 왕언니 S는 무엇이든 자연 고유의 맛을 잘 살린다. 과한 양념을 사용하지 않아서 고향을 추억할 수 있는 순수한 맛이다.

그리고 전문 요리사 버금가는 실력을 갖춘 제주 출신의 J는 식당과 카페 운영으로 쌓은 솜씨로 한식은 물론이요 퓨전요리와 양식까지 척척 만들어낸다. 부지런함을 타고 난 그녀는 우리 셋 중 가장 먼 곳(청라에서 부천 상동)에서 오면서도 늘 두 손 가득 보따리를 싸 오는 살림꾼이기도 하다. 마지막 멤버인 나는 사실 입맛만 예민하고 눈으로 보는 요리만 잘할 뿐 실전에서는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 식후 커피나 디저트를 차려내는 것으로 체면치레를 한다.

1인 가구 증가와 백세인생이 화두가 되는 요즘 노년층과 나 홀로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 식사를 혼자서 간단하게 해결하다 보면 고른 영양 섭취에 소홀해지기 십상이고 제때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혼밥을 피할 수 없던 우리 멤버들이 구축한 공유 식탁은 나름 우리 시대의 시니어 식문화를 선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옛말도 있듯이 우리는 같은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인생사를 풀어놓고 한층 한층 인정을 쌓아가는 중이다.

이 글을 쓰는 동안 갑자기 공유 식탁 활동에 애칭을 붙여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냉파(ALNANGPA)’가 어떨까? ‘알뜰하게 냉장고 파먹기’라는 준말을 소리 나는 대로 영어로 표기하니 마치 대단한 모임처럼 느껴진다. 아직 멤버들과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내 아이디어에 스스로 만족하며 직진하기로 했다.

건강하고 따뜻한 밥상에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 유지된다. 우리의 삶에서 먹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니던가. 그래서 나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렇게 외친다.

‘밥맛을 잃은 자여! 알냉파의 공유 식탁으로 오라.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으니.’

Letter 02

사돈들의 여행 모임

정소연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나는 딸 셋과 아들 하나가 있는 집안의 큰딸이다. 2011년 3월 둘째 여동생이 먼저 결혼하였고 2014년 4월 내가 결혼했다.

그해 8월 아빠가 “10월에 둘째 군포 사돈들이랑 너희 시부모님과 함께 안면도에 있는 황도로 1박 2일 놀러 가는 건 어떠니?” 물어보셨다. 이제 결혼 4개월 차인 나는 “네? 우리 시부모님들이랑 다 같이요?”라고 되물었다. 친정, 시댁 그리고 동생네 시댁 어른들 모두 함께라니 매우 어렵고 힘든 자리가 분명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다.

우선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시댁에 여쭙어보았다. 친정 부모님을 상견례와 결혼식장에서 딱 두 번만 뵈었고 동생네 사돈 어른들은 내 결혼식장에서 눈인사만 나눈 것이 전부이니 시부모님들께서도 걱정하는 모습이었지만 참석하겠다고 하셨다.

여행 일정은 모두 아빠가 계획하셨고 걱정을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2014년 10월 4일 '사돈과 사돈 그리고 사돈'들과의 첫 번째 여행이 시작되었다.

친정 부모님, 우리 시부모님과 성격 좋은 미혼의 시누이, 군포 사돈 어르신들, 딸 셋, 사위 둘, 남동생, 이제 9개월 된 귀여운 조카까지 13명이 함께 모였다.

태안 황도라는 섬에 자리 잡은 펜션은 나의 걱정을 한 번에 날려버렸다. 넓은 잔디밭에서 엄마, 아빠, 시부모님, 사돈 어르신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고 바다를 내려다보며 경치에 푹 빠져계셨다.

부모님 여섯 분은 근처 항구에 가서 구경도 하고 회도 떠 오고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밤에는 서산 대표 우리 엄마, 군포 대표 사돈 어르신, 대전 대표 우리 시아버님 그리고 시누이가 함께 그림 맞추기, 화투를 하며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고 9개월 조카의 재롱을 보며 그렇게 밤이 저물었다.

다음날 여행을 계획한 아빠에게 너무 고마웠다는 인사도 잊지 않고 다음에 또 만나자는 말과 함께 첫 여행이 마무리되었다. 여행을 마치고 올라가는 길에 나는 큰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다.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2015년 11월 제부에게 연락이 왔다.

“처형, 작년 여행은 서산 아버님께서 준비하셨으니 이번에는 군포에서 모임을 준비할까 합니다. 어떠세요?”

헉... 이런... 나는 “또요?”라고 되물었다.

“네, 대전 어르신들께 한번 여쭙봐 주세요.”

나는 시택에 연락했다.

“어머님, 이번에는 둘째네 군포 어르신들께서 준비하신다고 12월에 대부도에서 모이자고 하는데 어떠세요?”라고 묻자 어머님은 “그럼 가야지~” 고민도 없이 말씀하셨다. 첫 안면도 여행 때와는 정말 다른 모습

이었다. 그만큼 부모님들끼리 편안하게 잘 맞으셨다는 느낌이 들었다.

2015년 12월 사돈과 사돈 그리고 사돈의 두 번째 대부도 여행이 이루어졌다. 우리 친정 부모님, 대전 시부모님, 군포 사돈 어르신들, 딸 셋, 사위 둘, 남동생, 24개월 된 조카 유준이 그리고 100일이 지난 나의 큰아들 경빈이까지 13명이 함께했다. 시누이는 미국 유학으로 오지 못했다. 겨울 바다를 바라보며 대부도의 추억이 추가되었다.

2016년 5월 한창 낚시를 좋아하셨던 아빠가 좌대 낚시터를 빌렸으니 낚시하러 서산으로 한 번 모이자고 하셨다. 부담 없이 다들 오셔서 낚시하고 저녁은 푸짐하게 회로 먹고 숙소는 따로 잡을 것 없이 서산 친정에서 하루 묵자고 하셨다.

낚시를 처음 해 보신 시어머님, 군포 어머님도 신기해하셨고 좌대에 붙어 있는 홍합을 따느라 바빴었다. 딸들과 사위들도 누가 더 큰 물고기를 낚는지 경쟁도 붙고 돌아가면서 조카와 아들을 안고 업고 계신 아버님들. 좌대 낚시터에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세 번째 여행이 마무리되었다.

2017년 5월 우리 시댁이 준비해서 공주 동학사에서의 네 번째 여행이 이루어졌다. 4살이 된 조카와 3살이 된 아들은 비눗방울을 날리며 신나게 놀고 부모님 여섯 분은 고즈넉한 카페에 가셔서 앞으로 모임을 어떻게 할 지 상의를 하신 모양이다. 저녁을 먹으며 아빠가 말씀하셨다.

“앞으로 회비를 모아서 이 모임을 계속하면 좋겠다고 모두 말씀하시서 한 달에 5만 원씩 모으기로 했는데 소연이 네가 회비를 관리해 주면 좋을 것 같구나.”

내 눈은 웃고 있지만 나의 머리는 멍했다. 그래 4번의 여행~ 부모님들 모두 사돈이라는 어려운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고

처음에 심적 부담이 있었지만 점점 편안해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나는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통장을 개설한 후 다음 달부터 매달 5만 원씩 저축, 대전, 군포 회비가 입금되기 시작했다.

2018년 4월 따뜻한 봄날 다섯 번째 여행은 그해 동생과 내가 둘째를 출산해서 부모님 여섯 분만 여수와 통영으로 다녀오셨다. 회비 체크카드가 내 명의였기 때문에 식당, 카페, 관광지 입장권 결제 등이 문자로 종일 울렸다.

저녁때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 여행은 괜찮으시?” 한껏 상기된 목소리로 엄마는 “그럼 너무 재밌지. 사돈들이 자연이네랑 너한테 갖김치 택배로 보냈어. 출산하고 몸조리할 때 먹으라고 군포 사돈이 미역도 보냈으니까 택배 갈 거야~.” 여행지에서도 자식들 생각해서 이것저것 택배로 보내주는 부모님들의 감사한 마음에 몽클했다.

2019년 11월 여섯 번째 여행으로 태안 만리포에 모였다. 딸·사위들과 남동생은 함께 서핑을 배웠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주변 나들이를 다녀오셨다. 이 여행을 끝으로 코로나가 시작되었다. 사돈간의 여행도 중단되었다.

2022년 11월 셋째 동생이 결혼했다. 이젠 사위도 한 명 더 늘고 새로운 사돈 어르신들도 계신다. 아빠는 상견례 자리에서 모임에 대해 말씀하셨고 막내 제부 부모님들께서도 함께하기로 했다. 코로나 해제와 함께 모임도 다시 시작되었다.

2022년 11월 전화벨이 울린다.

“아빠다. 3월에 예산의 예당저수지에서 한 번 모임까 한다. 지금 펜션 답사 왔는데 저수지가 딱 보이고 아주 뷰도 좋고 요즘 예산 시장이 불거리, 먹을거리가 많으니까 여기서 모이자. 이번에는 현수막도 좀 만 들어 가려고...”

“네? 현수막이요?”

“응. 그거 들고 사진 찍으면 좋을 거 같아서 아빠가 다 알아봤어.”

2023년 3월 11일 그렇게 일곱 번째 여행으로 우리들은 예산에 모였다. 친정 부모님, 대전 시부모님, 성격 좋은 우리 시누이, 군포 사돈 어르신들, 청주 사돈 어르신들, 딸 셋, 사위 셋, 남동생, 10살·6살 둘째 동생네 아들 둘, 9살·6살 우리 아들 둘 총 20명이 예산 시장 앞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국밥으로 점심을 먹고 강통 열차도 타고 저녁식사도 거하게 먹었다.

2024년 6월 3일 여덟 번째 여행은 서산 친정 부모님, 대전 시부모님, 군포 둘째 사돈 어르신들, 청주 셋째 사돈 어르신들 부모님 여덟 분이 함께 삼척으로 해서 영덕까지 1박 2일 여행을 가신다. 모임에서 제일 막내이신 아빠가 이번 여행을 준비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왜 이렇게 사돈들이랑 함께 모이기 시작했나면 딸들이 시집 가서 잘살려면 나도 사돈들이랑 얼굴도 보고 만나면서 잘 지내야 우리 딸들도 사위들도 좋은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아서 시작한 거야.”

아빠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0년 전 부담스럽기만 했던 이 모임의 시작이 지금은 나도 너무나 편안하고 친정, 시댁뿐만 아니라 사돈 어르신들 안부도 묻고 서로 정을 나누며 정말 큰 가족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덟 분의 부모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아빠 안전 운전하시고 모두 즐거운 여행 보내고 오세요. 사랑합니다!

Letter 03

자연 속으로 침범

애청자

올 해 초 나는 '한부모 가족'의 가장이 되었다. 혼자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망망대해에 나 홀로 처참히 서 있는 기분이 자주 찾아왔다. 울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밤이면 이불을 끌어안고 숨죽여 울곤 했다.

아빠 없이 처음으로 맞이한 5월. 그동안 '나만의 슬픔'이라는 늪에 빠져 아이들을 방치한 것은 아닐까 싶어 에너지 가득한 이 녀석들을 데리고 푸르른 이 계절에 어디로 떠나볼지 고민했다.

마침 귀농한 옛 회사 언니가 우리 가족을 초대해 줬다. 아이들은 "놀이공원에 가는 거냐, 물놀이장에 가는 거냐" 내게 물었다.

"우리 가족 모두 충전하러 가는 거야. 100% 충전하고 오자!"

"난 휴대폰 아닌데? 충전기를 내 몸에 꽂으려고?"

역시 아이들 때문에 웃는다. 고속버스에 오른 아이들은 아이스크

림을 먹으며 신나 했다. 창밖 풍경이 신기한지 두 녀석 다 창문에 매미처럼 달라붙어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에 우와~ 우와~ 감탄했다. 4시간여 달려 도착한 산골 마을. 아이들은 입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긴 놀이공원도 아니고 물놀이장도 아니잖아요. 재미없어요.”

잠시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여기서 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장보다 더 재미있을 테니까 입 집어넣으세요.”

늦은 밤에 도착한 언니네 집에서 바로 잠을 청하고 다음 날 아침 꼬끼오~ 수탉의 우렁찬 외침에 잠이 깬다. 창문을 여니 이름 모를 새들의 맑은 지저귀미가 들려오고 아이들은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다고 했다. 언니는 아이들에게 작은 바구니를 건네주었다.

“암탉이 알을 낳았으니까 너희들이 꺼내볼래? 그 달걀로 맛있는 아침을 만들 거야.”

아이들은 미션을 수행하듯 닭장 앞에 쪼그리고 앉아 달걀이 있나 없나 살폈다. 그리곤 무슨 귀한 보물이라도 발견한 양 소리를 질렀다.

“저기 있다! 내가 찾았다!”

달걀을 다섯 개나 찾은 아이들은 큰일이라도 해낸 듯 우쭐했다. 암탉이 건네준 달걀과 텃밭에서 캐온 감자를 삶고 완두콩으로 끓인 수프를 맛있게 먹고 우리는 작은 논으로 모내기하러 갔다. 두 꼬맹이를 논으로 데려가 맨발로 걷게 하니 이 녀석들 입이 귀에 걸렸다.

“우와! 흙이 이런 느낌이었네요. 엄마, 흙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요. 완전 신기해요!”

도심에서 나고 자라 콘크리트에만 익숙한 아이들에게 흙의 느낌이 꽤 좋았나 보다. 물댄 눈에 들어가 참병참병하는 아이들.

“애들아, 모 심을 곳이니 어서 나와!”

“괜찮아. 그냥 애들 놀게 해. 그쪽은 어차피 손으로 심어야 해. 첫 농

사라 욕심 안 부리고 자연이 주는 대로만 거뒀을일 거거든. 열심히 놀라고 해. 추억 부자가 진정한 챔피언인 거, 너도 알잖아.”

드디어 눈에 모를 심기 시작했다. 청명한 하늘 아래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눈에 모가 하나둘 심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무언가 내 안에 있던 슬픔이 쪽 빠져나가고 행복감과 평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일바지까지 입고 모판을 으라차차 나르다 보니 어느새 새참 시간! 눈두렁에 철퍼덕 앉아 새참을 열심히 먹었다. 몸 여기저기에 흙을 묻힌 아이들은 막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신이 났다.

“엄마, 꼭 소풍 온 것 같아요. 진짜 꿀맛이에요!”

눈 구석 자리는 어른들이 들어가 손으로 모를 심는데 아이들도 따라나섰다. 아이들에겐 일이 아니라 놀이여서 싱글벙글하였다.

모내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자 회사 언니는 우리 아이들 준다고 닭을 잡아 백숙을 해주었다. 평상에 앉아 백숙을 먹고 우린 저녁 7시에 그대로 뻘었는데 잠자리에 누운 아이들은 “오늘 진짜 재밌었어! 오늘이 계속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진짜 행복했어요” 하더니 피곤했는지 금세 코를 골기 시작했다.

자연 안으로 발을 들여 온몸으로 자연을 느끼고 경험한 하루가 큰 선물 같이 느껴졌다. 회사 언니 덕분에 큰돈 들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꺼내볼 추억을 만들어준 것 같아 언니에게 한없이 고마웠다. 회사 언니는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해주었다.

“찬란한 가을날 다시 놀러 와. 그때 이곳은 더 장관일 거야.”

가을 햇살 눈부시게 쏟아지는 날 나는 더 이상 울지 않고 아이들 손잡고 이곳을 다시 찾으리라. 그리고 다시 일바지를 입고 황금물결 일렁이는 눈으로 달려가 벼 베는 일을 열심히 거들 것이다. 찬란한 가을 들판을 아이들 추억 속에 꼭 담아주고 싶다.

Letter 04

어부바

이영민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어쩌면 나는 내 생애 초기에 들은 ‘엄마’와 ‘어부바’ 소리를 살면서 들은 소리 중에 제일 많이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딸아이가 새로 이사 온 집에 적응이 안 됐는지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터 발목을 빼고 말았다. 유치원 다닐 때 자전거 배우다 왼쪽 팔이 부러졌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인라인스케이트 가르치다 오른쪽 발목을 빼었는데 그 현장엔 늘 아빠인 내가 있었다.

이번에도 출근하는 딸에게 “치마 너무 짧은 거 아니니? 퐁퐁 보일겠다” 하며 장난치듯 따라갔는데 딸내미가 도망치듯 가는 통에 빼끗하며 반 층을 굴렀다. 뒷머리를 벽에 부딪친 터라 출근을 만류하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크게 이상 없다고는 하나 메스껍고 어지러울 수 있으니 수액 맞는 동안 관찰하고 집에 와서도 며칠은 관찰해야 한다고 했다. 그새 오른쪽 발목은 퐁퐁 부어오르고



뒷머리에는 흰 거즈를 대고 발목에는 반깁스한 다 큰 딸내미에게 미안하기 그지없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아내는 “자기는 딸 팔 부러뜨려, 발 부러뜨려 애를 왜 못살게 하는데?” 하며 화를 내서 재택근무 하는 딸내미 방 근처에 얼씬도 못 하고 있다. 할 말 없다. 나도 뭐 나름 변명거리는 있지만 지금 한 소리 했다가는 보자기 하나 던져주며 나가라고 할 것 같아 꼭 참고 있다. 그래야 할 것 같다, 이번에는.

어제는 머리 다친 곳 드레싱 할 검 검사하러 가는 날이었다. 넘어진 계단에서 주저하는 딸아이에게 “어부바!” 하니 어찌 알아들었는지 “요 계단까지만…”했다. 그리고 보니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마지막 으로 엮어본 기억이 났다.

어쩌면 나는 말문이 트이기 전부터 칭얼거리며 자주 했던 말이 “엄

마~ 어부바~”가 아니었을까 싶다. 어부바용 빨간색 포대기에 나를 업고 자장가를 찬송가로 불러주셨던 나의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퇴원하실 때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업고 병원 앞 택시까지 왔던 기억. 그때의 나처럼 그때의 어머니처럼 딸아이는 다 큰 성인이 되었음에도 ‘어부바’ 한 번으로 나를 용서해 주려는지 내 등에 꼭 매달렸다.

다행히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다. 집에 와서 처음으로 딸아이 신발이 뭐가 있나 살펴봤다. 직장 들어가고부터는 굽 있는 신발을 자주 신고 운동화도 있다. 굽 낮은 신발은 오래됐는지 낡은 것만 있기에 반깍스 풀면 편한 신을 고르라고 해야겠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 말씀이 기억난다. 평생 구두쟁이셨던 아버지. 그것도 여성 수제화만 만드신지라 늘 하셨던 말씀.

“여자 구두의 자존심은 힐 높이야~.”

그래서였나 딸아이의 신발 굽이 아슬아슬해도 굳이 뭐라 하지 않았던 나. 그래도 이제는 편하게 신는 게 좋지 싶다.

오래전 냉장고 냉동실에 있던 콘 아이스크림을 꺼내다가 키 작은 딸내미 머리로 뽕족한 부분이 떨어져 작디작게 땀빵이 생겼다. 그 일을 모른 척하고 있는데 딸아이는 아이스크림 할인점 갈 때마다 콘만 잔뜩 사 와서 먹는다. 그런 딸을 볼 때마다 우리 부부는 뜨끔 한다. “엄마 아빠는 아이스크림 사 오면 왜 콘은 안 사와?” 하고 묻는 딸. 속으로 중얼거려봤다.

‘그날 이후로 콘은 우리 집에 올 수 없단다.’

잠시 내 등에 업혀준 딸아이가 고맙기도 하고 ‘이젠 약 올리지 말아야지...’ 반성도 해본다. 그래도 굳이 굳이 변명하자면 어린 너를 안고 흔들다가 떨어뜨려 본 적은 없단다, 딸아.

어부바, 이 말은 한국에만 있는 굉장히 귀여운 언어인 것 같다.

Letter 05

상추 속에 사랑이 있었다

박희종 | 충북 청주시

이 른 봄에 심어놓은 상추가 한창이다. 여름날의 보물인 상추는 특별히 소독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해마다 자그마한 텃밭에 상추를 심는 이유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째 채소를 심었다. 상추와 썩갓 여기에 케일도 빼놓을 수 없다.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며 바라보는 것을 재미로 삼고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텃밭이다. 얼마나 자랐는지 혹시 고라니는 오지 않았는지 살피며 오늘도 안전함에 안도의 숨을 쉰다.

텃밭을 가득 메운 상추를 보니 갑자기 돌아가신 형님 생각이 난다. 한가한 일요일이면 느닷없이 형님에게서 전화가 오곤 했다. 텃밭에 상추가 자랐으니 뜯어가라는 전화였다. 형님은 오래전 형수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상추 농사를 시작하셨는데 홀로 사시는 형님의 전화를 받고도 갈까 말까 망설였던 이유는 살고 계신 곳이 40km가 넘는 먼 거

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까 잠시 망설일 때면 늘 아내가 따라 나섰다. 우리는 상추 한 줌을 뜯으러 백 리 길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빈손으로 갈 수 없기에 시장에 들러 이것저것을 구입한다. 형님의 먹거리 걱정이 떠올라 우선 해장국을 사고 과일도 준비해 발길을 서둘렀다.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우리를 부르는 형님이 가끔 야속했다. 먼 곳으로 떠나는 여행길에서도 전화가 걸려 왔고 고단함을 달래는 여가 중에도 전화는 이어졌다. 홀로 계신 형님을 두고 놀러 가는 것이 죄송해 수백 리 여행길에서도 서슴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렇게 서둘러 찾아간 썰렁한 집에서 형님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발 일을 하고 계셨다. 들어선 방은 늘 어수선했다. 아내는 방 정리를 하고 냉장고 속을 청소한다. 곧이어 말없이 화장실도 닦아낸다. 어지러운 집 안을 정리하는 아내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눈치를 보고 있으면 아내는 온갖 굵은일을 끝내고 밥을 지었다. 언제나 집밥을 고집했던 형님을 위해서였다. 부족한 양념과 먹거리를 준비하는 아내는 말이 없다. 차려진 밥상을 놓고 마주 앉은 형제도 말이 없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으면 전화하셨을까? 동생은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어 죄송했고 형님은 느닷없이 불러낸 것이 미안했을 테다. 홀로 살아가는 생의 쓸쓸함과 내 삶을 살아내야 하는 분주함이 부딪혔다. 가능하면 짬을 내어 찾아갔지만 언제나 부족한 동생이었다. 한 줌의 상추를 놓고 보니 이렇게 오래전 기억이 떠오른다.

나는 이제 형님의 마음을 알 것도 같다. 작은 텃밭을 매운 상추를 보면 먼 곳에 사는 아이들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청정 골짜기에서 자란 상추. 몇천 원도 되지 않지만 아비의 정성이 담긴 채소다. 멀지 않으면 이리 와서 두어 주먹 뜯어주었으면 하는데 형님의 생각도 그랬



으리라. 백 리를 달려가 뜯어온 상추는 고작해야 몇천 원으로 족하지만 마음만은 헤아릴 수 없는 값이었다.

시골집 마당 구석에 자란 상추는 임자가 없었다. 형님 홀로 사시면서 상추가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했을까? 심심풀이라 하지만 빈 땅으로 놀릴 수 없으니 그저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가꾼 텃밭이었다. 그렇게 별린 농사였다.

그리움과 쓸쓸함을 상추에 실어 동생을 불러낸 것이다. 고마움에 찾아간 동생, 외로움에 전화를 한 형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았다. 아무런 말이 없어도 뜻을 읽어냈고 서로 고마움을 알았다. 서러운 세월이었지만 서로를 탓하지 않고 살았던 형님과 나. 아침나절 한 줌의 상추가 불러낸 옛 기억이었다.

Letter 06

부고장에 대한 예의

애청자

문 자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소리에 휴대폰을 열어보니 친구 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이 와 있다. 올해 95세인 그댝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인 친구네 집에서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다가 많이 편찮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힘에 부치셨나 보다. 그래도 친구의 살뜰한 보살핌 속에 노년은 편안하셨겠다고 생각하다가 친구가 이 부고장을 왜 보냈을까로 생각이 옮겨갔다.

장례식장은 집에서 차 타고 20분 거리고 상주 계좌번호도 함께 들어있는 부고장을 보니 묘했다. 이 친구는 결혼해서 같은 도시에 사는 유일한 친구다. 학교 다닐 때는 친하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연락이 되었고 간간이 얼굴도 보고 차도 마시는 친구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나는 시댝 근처에 살았었다. 시어머니 시누가 5분 거리에 살아서 친구가 아이들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우리 집에서 밥도 먹

고 시어머니가 해 주신 김치도 나눠 먹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친구 아이들이라고 그 친구네 애들에게 만 원씩 오천 원씩 용돈도 주셨다. 이 친구는 우리 시대 식구 얼굴까지 아는 유일한 친구다.

15년 전 우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 시누이가 그랬다.

“예진이 엄마한테는 부고 소식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알면 서운해해~”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어 경황이 없어 연락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마침 그날 친구한테 안부 전화가 왔다. 나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있다고 얘기했고 친구는 알았다고 했다. 친구는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고 조의금도 보내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친구네 집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그 후 친구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고 친구도 내 친정엄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왔었다.

나이 오십이 넘으니 부고장을 자주 받게 된다. 친구의 부모님 상이면 꼭 가려 하는데 시부모님 상이면 참 애매한 게 조의금도 가는 만큼 오는 거라고 내게는 시부모님이 안 계시기에 받을 게 없다. 그래도 가까이 지내는 친구는 장례식장을 찾기도 하고 조의금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이 친구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던 게 사실이다. 나였다면 멀지도 않은 장례식장에 찾아갔을 거고 못 가면 조의금이라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게 나에 대한 아니면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닐까.

지난주에는 함께 모임을 하는 친구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이 안동이었다. 조의를 표해야 하는데 요즘은 조의금도 올라서 기본이 10만 원이라 하는데 받지도 못할 조의금 10만 원을 보낼



생각을 하니 아까운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야, 조의금 오만 원만 내도 될까? 돈도 돈이지만 마음이라잖아!”

“오만 원이 뭐야, 오만 원이! 오만 원 보내려면 보내지를 말아야지.”

남편이 그러는 통에 10만 원을 보냈는데 마음은 편했다.

이리저리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 남편도 아는 친구인데 장례식장에 다녀와야 하는지 조의금만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되는지 부고장에 대한 예의는 어디까지일까?

Letter 07

어른이 되는 순간

이창우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어른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학창 시절 선생님께서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치과에 갈 때 고통보다 비용이 두려우면 그게 진짜 어른이 됐단 뜻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땐 술, 담배를 구매하는 손님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며 생각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무 살이 되면 어른 아닌가라고.

그런데 서른이 된 지금 나는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무 살이 넘은 지도 한참 되었고 치과에 가면 고통보다는 비용이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른이 아닌 것 같았다. 내가 생각하는 어른은 멋진 생각을 가지고 절제되고 흔들리지 않는 감정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일을 겪으면서 어른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

며칠 전 아버지께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갑자기 몸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두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가벼운 감기 정도로 생각했으나 몇 분 뒤 안방으로 가보니 아버지께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떨고 계셨습니다. 체온계로 열을 재어 보니 39도가 넘었습니다. 당황한 나는 상비약을 준비하고 물수건으로 아버지의 머리와 몸을 계속 닦았습니다. 그럼에도 도통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8시간 넘게 열과의 사투를 벌였지만 변함이 없었고 나는 고민 끝에 말했다.

“장남의 권한으로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로 갑시다.”

나는 서둘러 아버지의 신분증과 지갑, 나의 지갑을 챙겼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도로로 나섰다.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러 응급실로 달려갔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접수하며 보호자란에 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넣었다.

보호자는 진료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어머니와 나는 밖에 있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다. 시간이 흐르고 간호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수액을 한 대 맞아야 하니 1시간 정도 기다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차피 한 사람만 있으면 되니 어머니께선 집에 돌아가서 쉬고 주세요. 제가 남아서 아버지를 모시고 갈게요.”

보호자 대기실에 혼자 남은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오후 9시가 넘은 늦은 시간, 응급실에 가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도 나였고 준비물을 챙긴 것도 나였고 택시를 부르고 응급실까지 온 것도 나였다. 이제는 이런 일들을 모두 내가 하게 되었구나. 예전에는 아픈 나를 위해 부모님이 준비하고 판단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위해 준비하고 판단해야 하는 순간들이 왔구나.

그리고 생각했다. 어른이 되는 순간은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의 이름이 부모님의 이름이 아닌 자식의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부모님이 보호자가 되던 시대에서 내가 부모님의 보호자가 되는 순간이 어른이 되는 순간이라고 말이다.

수액을 맞고 나온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 오며 속으로 다짐했다.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보호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노라고. 어른이 되겠노라고.

Letter 08

이직에 대한 고민

김태영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20 08년 직장을 잃은 저는 전 사장님의 소개로 가구 전문 배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참으로 많은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특히하게도 저는 사수가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된 경우입니다. 가구 공장에서 일하다 왔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가구 제작과 배달은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가구 공장에서 공장장과 직원들이 커다란 서랍장이나 장롱을 만들 때 우리끼리 떠들던 말이 있습니다.

“가구 배송 기사님들이 이렇게 크고 무거운 물건을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계단을 혼자 나른 데야!”

“세상에 사람보다 더 큰 물건을 어떻게 혼자 날라? 말도 안 돼.”

저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그 큰 서랍장과 장롱을 이고 지고 계단을 오

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배송 나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내 키만큼이나 크고 넓은 서랍장을 빌라 4층에 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드는지조차 몰랐던 나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트럭이 멈추더니 기사님이 내려서 제 거보다 더 큰 서랍장을 짊어지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등에 멘 상태에서 밴딩 끈을 두 손으로 붙들고 만세를 부르며 계단을 오르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보던 저는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며 그 기사님처럼 만세를 부르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힘도 없고 요령도 없는 저는 2층을 채 오르기도 전에 균형을 잃었고 그 바람에 가구와 함께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서랍장은 박살이 난 상태였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찌어찌하여 배달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차에는 배달할 물건이 대여섯 집이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배달을 포기한 저는 고객님들께 일일이 전화를 드려 양해를 구하고 내일 배송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저의 첫날이 지나고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니 부장님께서 제 상황을 듣고는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하루 몇십만 원 벌자고 나간 건데 파손비 물리면 뭐가 남아요. 파손비 물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몸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일해요.”

부장님의 그 한마디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고 17년 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장님이 현재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님입니다.

17년을 일하면서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배달 노동자를 안하무

인 종처럼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가구 치우고 청소한 다음에 놓고 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쓰레기를 없애주면서 버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층 이상부터는 사다리차 필수 비용은 고객 부담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비 받았으니 사다리차 같은 거 모르는 일이다, 4층까지 알아서 올리라는 것도 모자라서 본인 집에 있는 장롱을 1층 분리수거장에 내려놓으라는 고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서비스 요구는 수많은 택배기사님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배달 노동자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2015년 무렵까지 계속되었습니다.

2016년 이후 변화의 물결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고객님들의 육체노동자에 대한 인식 또한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장롱이나 서랍장의 경우 종류에 따라서 130kg이 넘는 초중량 제품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제품의 경우 집안에서도 손수레를 이용해야 하는데 밖에서 굴러다닌 더러운 바퀴를 집안까지 들여오면 어떡하느냐는 고객님의 성화에 배송을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고객님은 크기와 무게 상관없이 집안에서 손수레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는 달리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송 단가입니다. 2005년쯤 가구 전문 택배라는 신규 직업이 생겼습니다. 가구를 택배기사가 나른다는 것도 무척이나 생소했습니다. 저 또한 이 일을 하러 가야 이런 직업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배송 단가는 그때 책정된 금액입니다. “설마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겠어?”라고 물으신다면 단언컨대 한 번도 안 올랐습니다. 안 오른 것을 떠나 배송 단가는 10% 낮아졌고 30%이던 수수료는 33%로 인상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오르지 않은

배송 단가에 더해 판매처의 서비스 요구는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봅니다.

며칠 전 어느 고객님 앞에서 말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화장대에 함께 딸린 의자의 포장을 뜯는 순간 나도 모르게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배송비 5천 원으로 책정된 의자가 조립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황당한 제가 고객님께 “배송비 5천 원에 조립까지 해달라는 거는 진짜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했고 고객님 또한 당황한 표정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차 싶어 “아니, 고객님께 하는 말이 아니고 배송업체에 하는 얘기에요”라고 둘러댔지만 이미 앞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고객님이 내용을 그대로 판매처 후기에 올렸고 다음 날 판매처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내게로 내용이 전달되었고 고객님 앞에서 입조심하라는 전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애초에 배송비를 제대로 책정했으면 저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었겠지만 그건 우리끼리의 문제이지 고객님과 의 문제는 아니었기에 당연히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뭘지 모르게 억울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오르지 않은 배송 단가! 발톱을 두 번이나 빼고 몇 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천만한 노동! 13시간이 넘는 긴 노동시간.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밤새도록 고민하다 문학회 단톡방에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모 선배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이직하라는 조언을 하셨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선배님이 당신의 공장에 와서 일해 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선배님의 제안에 만사 제쳐두고 경기도 화성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포천에서 화성까지는 두 시간 반 거리입니다. 화성에

도착하자 선배님께서서는 친절하게 공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잘 갖추어진 복지 제도, 가구 배달에 비해 두 배 가까운 급여 무엇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데가 없었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떠돌던 사람이 공장에 갇혀 지낼 수 있을지, 탱크로리 제작이라는 게 아무리 봐도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선배님께 극진한 저녁 식사 대접을 받고 선물로 주신 막걸리 한 상자와 해물파전 두 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와 아들을 불러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들은 급료가 좋은데 당연히 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내는 당신 나이가 신세 살인데 지금 무슨 용기로 객지에 나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그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면서 극구 반대합니다. 탱크로리 한 대의 제작 단가가 1억에서 3억이라는 제 말에 아내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더더욱 안 된다고 못을 박습니다. 칠칠치 못한 제 성격을 잘 아는 아내가 행여 실수라도 할까 봐 미리 겁을 먹는 것일 겁니다.

저는 솔직히 반반입니다. 지금 직장에 비해 훨씬 더 나은 급여, 철저한 노동법 준수는 가고 싶은 마음이고 결혼 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집,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오십하고도 세 살이나 더 먹은 나이는 망설임입니다. 17년 넘게 해서 이미 익숙해진 일자리를 옮긴다는 것 그리고 적응 못 하고 지금의 자리로 복귀할 시 연차에 따른 배송지 선택권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는 것 또한 또 하나의 망설임입니다.

이직에 찬성표를 던지는 아들과 반대표를 던지는 아내, 가족이 모두 잠든 이 저녁, 이직에 대한 고민으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는 선배님께서 주신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Letter 09

아빠가 살고 있는 세상

정서현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출 근 준비에 정신이 없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이른 시간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늘 두근두근 불안해진다. 역시나 엄마의 힘 없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 화장실도 못 가서 애를 먹고 있어~”

전화를 끊고 상사에게 전화해 출근이 늦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엄마네 집으로 바로 갔다. 엄마는 거실에 앉아 다리가 아프다고 울상이었다. 엄마를 모시고 정형외과로 갔는데 그 사이 혈압이 크게 올라 다시 내과에 가서 소견서 받아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다. 결국 입원이 결정되었고 나의 하루는 그렇게 가버렸다.

아픈 엄마는 병원에 계시니 혼자 계실 아빠가 걱정되어 다시 친정 집으로 뛰었다.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왔다고 반가워하더니 엄

마가 안 보인다고 찾으시다.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니 물으시다.

“왜 입원했어? 어디가 아파?”

“다리로 아프고 염증 수치도 높고 혈압도 높고 열도 많이 나서 중환자실에 계세요.”

“아이고, 어찌냐~.”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신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아이고, 우리 이쁜 딸 왔구나. 많이 보고 싶었다~. 아침, 너희 엄마가 안 보인다. 아까부터 찾는 데 없어.”

그렇다. 우리 아빠는 치매를 앓고 계신다. 요즘은 점점 심해져 1분 전에 일어난 일도 기억 못 하신다. 저녁이 되면 고향인 경북 청송으로 내려가신다고, 엄마가 기다린다고 짐을 챙기기도 한다.

오늘도 아빠랑 마주 앉아 1분 전에 했던 얘기를 반복한다.

“어? 우리 딸 왔네. 많이 보고 싶었다. 그래, 잘 왔다. 근데 너희 엄마 어디 갔지? 아까부터 안 보여.”

“엄마 병원 가셨어. 아파서 입원하셨어.”

“아이코, 저런... 어디 많이 아프냐?”

나는 평소에는 그런 반복되는 대화에도 맘 편히 대답했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신경 쓰고 병원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내 대답에 자꾸 짜증이 섞이는 걸 느꼈다. 아프신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힘드니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만 가득했다. 씻는다고 하고 욕실에 들어가 한참을 우두커니 있다가 나왔다. 욕실에서 나오니 다시 반갑게 맞아주시는 우리 아빠.

“아이고, 우리 딸 왔구나. 그래, 잘 있었니?”

어느새 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아, 울면 안 되는데 그래도 다행이잖아. 아빠가 아직 나를 알고 세

상에서 가장 이쁜 딸로 기억하고 볼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웃어주시니 그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하면서도 자꾸 눈물이 났다.

아빠 저녁밥을 차려드리고 약을 챙겨 드리고 잠자리를 봐 드렸다. 아빠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이고, 우리 딸 왔구나. 그래, 잘 있었니?" 하며 다시 반갑게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엄마가 입원한 동안에는 아침 일찍부터 아빠 식사 챙겨드리고 씻는 것과 옷 입는 거 도와드리고 주간보호센터 차량에 태워드리고 나도 출근해야 한다. 퇴근 후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오시는 아빠랑 얘기 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아빠가 나의 어린 아들이 된 것 같다. 반찬을 한 가지만 드셔서 나 물이며 고기며 밥에 올려 드려야 한다. 정수기 사용하는 법을 잊어버려서 수도물 틀어놓고 손으로 드시려고 해서 컵에 정수기 물을 받아 챙겨 드린다. 세수도 했고 이도 닦았다고 우기실 때는 욕실 문 앞에 지키고 서서 하나하나 챙겨드려야 하고 옷도 안 갈아입는다고 억지를 부리면 속옷부터 양말까지 하나하나 순서대로 놓고 차례대로 벗고 입으라고 잔소리를 한다. 주간보호센터 차량에 안 타려고 우기는 아빠 모습은 어린 아들이 엄마랑 놀고 싶어 어린이집에 안 간다고 우기는 것 같다.

다시 아이가 되어 버린 아빠는 전화하는 것, TV 켜는 것, 전구 갈아 끼우고 가스 불 켜는 것, 정수기 사용하는 것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다 잊으셨고, 좋아하는 요구르트도 껍질을 못 벗겨 가만히 들고 계시지만 한다. 자주 보는 사람도 키가 커버린 손주들도 어릴 때 모습밖에 기억 못 하지만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아직 잘하신다. 가끔가다 집을 못 찾아 우리를 애먹이고 전기 코드를 다 뽑고 문을 꼭꼭 잠가서 엄마를 속상하게 만들지만 그



래도 아빠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툼도 없고 남을 속이거나 아프게 하는 일도 없는 즐거운 일만 있는 세계인 것 같아 보인다. 언제나 딸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소중한 아내가 눈앞에 안 보이면 어디 갔나 항상 찾고 오래된 추억을 어제 일처럼 즐겁게 얘기하며 유쾌한 생활을 하신다.

요즘은 기억하시는 게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빠가 오래오래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아빠의 아내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내가 할 일인 것 같다.

오늘도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한테 얘기한다.

“아빠,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아빠, 나 누구지 알아? 아빠, 아빠 딸 잊어버리면 안 돼!”

Letter 10

다시 봄이 된 사람들

애청자

인 생을 흔히 사계절에 비유하곤 한다. 봄은 몽글몽글 사랑스런 꽃들을 피워내고 싱그러운 연둣빛으로 생기를 불어넣는다.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나의 반쪽인 남편은 삭막한 겨울을 보내고 다시 봄이 되었다. 누르고 푸석거리던 얼굴빛은 8년이 되어가는 지금 복사꽃처럼 발그레지고 윤기가 나 화장한 나보다 그야말로 때가 같이 좋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변화가. 자꾸 얼굴을 만져보고 자는 얼굴도 예뻐 또 만져본다. 남편뿐만 아니라 그날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 얼굴이 봄처럼 화사했다.

얼마 전 '우리생명회'에서 청남대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우리생명회는 국립암센터에서 간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이식 후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공유와 친목을 위해 만든 모임이다. 이식 후 흔히 나타나는 증상 등을 선배님들이 직접 이야기해주고 유의사항을 알려줌으로써 당사

자나 가족의 불안감을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매주 요일을 정하여 병원으로 달려가 간식을 준비하는 환자나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상담 봉사도 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로 봉사활동도 중단되고 월 1회 모이던 모임도 하지 못해 서로의 안부가 궁금하던 차에 이번 야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오전 7시 국립암센터에 부부, 모녀, 친구들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모여들었다. 부득이하게 혼자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누구보다 밝았다.

남편은 2009년 간암 판정을 받고 색전술로 급한 불을 끄다 이 방법도 더 이상 할 수 없어 2016년 간식을 받아 올해로 8년이 되어간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되었지만 이식 후 초기에는 응급실과 친했다. 또한 담도 협착으로 두 번의 수술을 받고 1년여 간을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했을 정도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자식이 없던 우리는 그 당시 환갑이 된 아주버님이 공여자가 되었다. 남편이 부작용이 생길 때마다 아주버님은 ‘자신의 간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며 자책했다.

그렇게 1년 2년 지내다 보니 지금은 다시 직장을 다니며 봉사활동도 하고 암 진단을 받기 전보다 훨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큰 용기를 내준 아주버님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말은 안했지만 그 연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차를 타자마자 나누어 준 김밥, 떡, 음료수, 기념품, 과일 등 놓을 자리가 없을 만큼 넉넉하고 각자 준비한 간식들까지 나누니 뷔페식당에

온 듯 먹거리가 넘쳤다. 온화한 전 회장님의 목소리는 모습만큼이나 인자했고 강건한 모습의 현 회장님은 우레와 같이 씩씩했다. 한층 더 젊어진 여성 부회장은 수줍게 인사하였지만 단단함이 느껴졌다. 모두 이식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사한 안색에 체격도 다부져 얼마나 감사하던지 박수가 절로 나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길이 다소 막혔지만 무사히 청남대에 도착했다. 우산을 쓰고 들레길을 걸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동생이 형님에게, 아들이 엄마에게, 딸이 아빠에게 아낌없이 간을 나누었고 지금은 그때의 이야기를 웃으며 할 정도로 건강해졌다. 그중 한 사람만이 뇌사자의 간을 받았으며 천운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서 자신도 베푸는 삶을 살 거라고 했다.

다시 태어난 지 4살, 5살, 6살, 8살, 12살, 15살, 18살 등 연령은 다양했으나 이야기는 누구보다 잘 통했고 철쭉이 질투할 정도로 웃음꽃이 만발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에게도 악하게 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살아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산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서로의 모습을 열심히 카메라에 담으며 불륜을 의심할 정도로 꼭 붙어다니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다. 그야말로 한마음 한몸이 되었다. 지금도 응급실에 갈 때도 있고, 평생 면역억제제를 먹어야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식, 형제자매의 얼굴을 더 볼 수 있음에 다 견딜 수 있다고도 했다.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그야말로 책 몇 권일 정도로 드라마틱하고 고통 그 자체였지만 지금은 내 의지로 견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야말로 기적 같다고 했다.

나만 해도 그랬다. 주치의 선생님은 더 늦기 전에 자식에게 이야기

하라고 했지만 이야기할 자식이 없었고 나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 아예 제외되었다. 시댁 식구 중 아주버님을 제외하고 모두 B형간염 보균자였고 아주버님 또한 지방간이 있어 병원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아주버님은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를 끊고 독하게 운동하여 죽어가는 동생의 생명에 불을 지폈다.

지금도 10주에 한 번 혈액검사와 주사를 맞고 6개월에 한 번 CT 검사, 매일 다섯 번씩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주치의 선생님은 ‘나는 ○○씨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아주 관리 잘하고 있네요. 이제는 환자가 아니라 간이식 경험자입니다. 지금처럼 관리하면 좋겠어요’라고 칭찬을 하면 남편은 8살 어린애처럼 기분 좋아한다.

때론 남편의 행동이 못마땅해서 내가 잔소리라도 하면 “나 아직도 과자 좋아하는 어린이인데 봐주면 안돼~” 천진하게 웃는 모습에 그냥 웃고 만다. 그래도 김치 담글 때는 옆에서 파도 다듬어주고 설거지도 해준다.

그날 모인 사람들 모두는 춥고 황량한 겨울에서 다시 봄을 맞을 수 있도록 해준 국립암센터의 김성훈 교수님께 감사함을 표했다. 우리들의 희망이자 영웅인 교수님 또한 오래오래 건강하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행사를 마쳤다.

간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 참여한 사람들처럼 다 봄을 맞은 것은 아니다. 몸이 괜찮아지니 다시 술·담배를 입에 대거나 면역억제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기도 한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된다.

우리생명회 회원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셔서 내년 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은 사계절의 시작인 봄입니다. 고맙습니다.



[추신] 전 이 글을 쓰면서 한 가지 바람이 생겼습니다. 장기 기증 문화에 봄바람이 불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남편 일을 계기로 장기 기증을 서약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소중한 신체 일부를 기증함으로써 이웃에게 생명 자체의 기회를 주는 고귀한 나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제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 관리하니 남을 사랑하는 마음도 조금씩 자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간경화, 간암으로 근심하는 환자나 가족분들께 희망 잃지 마시라고 감히 청해봅니다.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이 가능하고 성공률도 97%라고 합니다. 간이 작으면 두 명의 공여자에게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연세가 많아도 공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75세 아내가 76세 남편에게 준 사례도 있다고 하니 소중한 생명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Letter 11

누룽지

박윤경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아침 햇살이 따스다. 커피를 들고 마당으로 나간다. 별을 등지고 야외 탁자에 앉으려니 대문 쪽에서 ‘공공’ 안달이 났다. 대문을 닫고 고리를 풀어준다. 귀를 젖히며 천방지축으로 돌고 도는 누룽지의 눈빛이 초롱초롱 반짝인다.

누룽지는 이제 1살이 된 우리 집 강아지다. 이놈을 키우기 전까지 개라면 질색했다. 털이 날리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 산책시키며 아무 곳이나 실례해도 천연덕스럽게 지나치는 개 주인들의 행동이 마뜩찮았다.

그랬던 내가 강아지를 키우게 된 것은 큰손자 은우 때문이다. 손자는 할머니네 집에 올 때마다 강아지를 키우게 해달라며 졸랐다. 봄별이 나른하게 내려앉던 일 년 전 그날은 더더욱 애잔하게 매달렸다. 할머니네 마당에서 강아지만 키우게 해주면 주말마다 내려와 목욕도

시키고 똥도 치우겠다며 새끼손가락까지 내밀었다.

아랫집 언니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하니 강아지를 키우면 집도 지킬 뿐만 아니라 뱀까지 잡는다며 나를 꼬드겼다. 결국 나는 손자를 위해 오일장에서 누런 털의 발바리를 데려왔다.

손자는 강아지와 노느라 그렇게도 잘 먹던 삼겹살도 외면했다. 온통 누렇고 구수하게 생겼다며 ‘누룽지’라 이름도 지었다.

그런데 이틀간 잘 먹고 재롱까지 떨던 누룽지가 갑자기 삼 일째 되는 날 토하고 설사를 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봤지만 차도가 없었다.

포기해야겠다는 우리와는 달리 아랫집 언니는 누룽지를 품에 안고 연신 기운 내라고 말했다.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깁~ 깁’ 누룽지가 앓는 소리를 내며 거드랑이에 코를 박았다. 밤이 되자 언니는 동물병원에 가자고 했다. 잠시 망설이던 나는 죽으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놈이 내 손목을 ‘앙’ 하고 물었다. 축 처져 있던 어린 강아지가 살고 싶다며 마지막으로 외친 행동 같아 소름이 돋았다. 누룽지를 보며 “너 병원 가면 살 수 있겠니?” 물으니 잠시 힘겹게 고개를 든다. 동공에서 빛이 났다.

청주시에 있는 동물병원 야간 진료실을 찾았다. 병명은 심장사상충. 입원시키라고 했다. 3일에 2백만 원이고 현찰이면 조금 깎아주는 데 살 수 있을지 보장은 못 한다고 했다. 무겁게 지갑을 열고 진료비로 현찰 16만 원을 내고 돌아왔다.

아침이 밝자 언니는 다시 읍내의 동물병원에 가자며 성화를 한다. 그곳도 같은 진단이 나왔다. 속은 속대로 쓰리고 기운이 쪽 빠져있는 와중에 손자에게서 영상통화가 왔는데 제발 살려달란다.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축 늘어진 누룽지를 안고 읍내에서 제일 경험

이 많다는 동물병원을 찾았다. 원장님은 심장사상충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과 코로나까지 걸렸다고 했다. 입원시키면 70만 원이고 사흘이면 퇴원할 수 있다는 말에 누룽지를 맡기고 집에 돌아온 나는 남편 에겐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병원비가 35만 원이라고 줄여 말했다.

남편의 따발총 같은 답변이 날아들었다. 강아지를 입원시킬 돈이면 노환인 어머니께 영양제 한 병이라도 더 놔드리라는 말이었다. 집안 분위기는 시베리아 별판이 되었고 할 말을 잃은 내 입에선 단내가 풍기고 입술까지 부풀었다.

사흘 후 아침도 거른 채 누룽지를 데리러 터벅터벅 걸어갔다. 병원 문을 밀고 원장님에게 인사를 하자 내 목소리를 들었나 보다. 누룽지가 ‘꽁~ 꽁~’ 반가워하는 모습이 어쩔 줄 모르는 아기 같다. 입원실 문을 열자 오줌을 질금대며 내 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린다. 반가움인지 고마움인지 누룽지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흑갈색으로 골을 이루며 젖어 드는 누룽지를 보며 나도 원장님도 목이 뻐다.

누룽지를 데려온 후 나는 반려견에 관한 동영상을 자주 찾아본다. 산골에 사는 할머니가 산에서 쓰러지자 키우던 개가 마을 사람에게 소식을 알려 무사했던 사연도 있고, 평생을 함께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할머니와 견던 길만 걷는 복순이, 또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보여주자 하염없이 우는 강아지를 옆 집에서 돌보는 사연도 있었다.

반면 여행지였다 키우던 개를 버리고 간 이들도 수도룩하다. 때론 화풀이로 번번이 매를 드는 사람도 있고 강아지 덕에 불길을 피해 목숨을 건진 주인이 그 개를 식용으로 식당에 넘겼다는 사연에선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다. 그리고 보면 반려견의 생애도 우리네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예전에는 집집이 소와 개, 닭 등을 키웠다. 먹고살기 힘든 시절이었기에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었다. 짐승이 밥을 먹는 걸 본 후 사람 밥상을 차렸다.

주택보다 아파트에 사는 요즘은 반려견을 키우는 집이 대다수다. 가족 중 1순위가 강아지라는 진담 같은 농담도 있지만 반려견을 너무 위한 나머지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조차 못 하는 이 또한 적지 않다.

나도 혹여 내 손자도 강아지를 이빠한 나머지 남을 위한 배려를 잊을까 하여 항상 신경을 쓴다. 산책하러 나갈 때면 비닐장갑과 봉투를 꼭 챙기게 하고 사람이 지나갈 때 특히 어린이와 마주칠 때는 누렁지의 목 끈을 바짝 당겨 한쪽에 서서 기다리게 한다. 책임을 다하려는 할머니의 말을 잘 귀담아듣고 따라서 실천하는 손자는 누렁지의 밥을 잘 챙기고 똥도 잘 치운다.

며칠 전엔 손자가 누렁지와 함께 산책하는 중 “그만 웃고 앞만 보고 가~”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누렁지가 자기만 보는 게 너무 귀여워서 한 소리란다. 내 보기엔 혀만 길게 내밀고 걸을 뿐인데 손자 눈에는 개가 활짝 웃고 있단다.

그 말에 누렁지를 다시 유심히 살펴봤다. 정말 환하게 웃는 것 같다. 동물과 이심전심으로 교감이 이뤄져서일까. 누렁지가 구수하게 웃는다. 참 인상이 밝다.

Letter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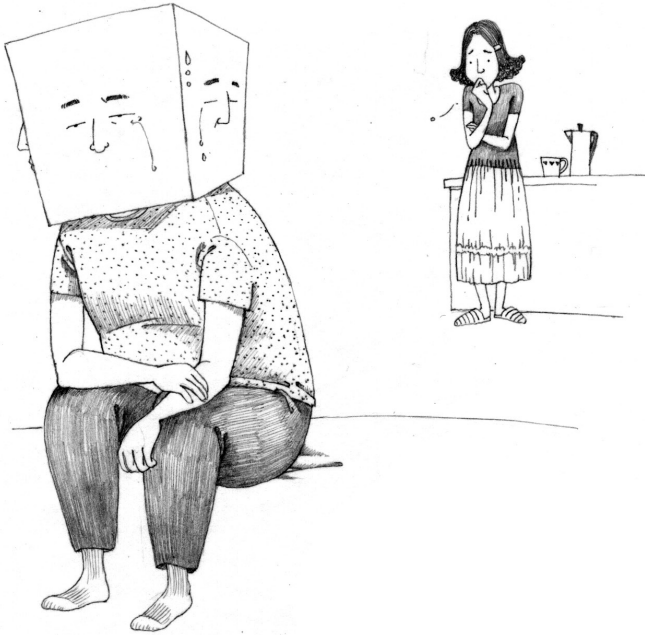
기억 지우기

이정현 |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요즘 깜빡하는 일도 많고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을 잘 못해요. 저도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 둘이 그냥 나이 먹어서 그렇다고 넘기는데 50대에 막 들어선 나이에 안 그러던 남편이 자주 깜빡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혹시 어디가 안 좋은가? 치매 증상인가? 왜 저러지?’ 싶은 게 걱정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려봐~”하고 걱정하는 말을 하면 “사람이 어찌다 까먹을 수도 있지. 뭘 큰일이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란 얘기를 들어야 하나?” 하고 남편 인성이 높아질 때도 많아 한바탕 싸우기까지 하는 요즘입니다.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2022년 말에 남편한테 엄청 힘든 일이 생겼거든요. 가족 중 두 명을 두 달 사이에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폐암 진단 받고 치료받다가 뇌로 전이



되어 치매 증상까지 와서 갑자기 돌아가셨고 남동생은 별 탈 없이 지나다가 갑자기 육종암 진단을 받고 어렵고 힘든 수술을 잘 견디고 버티다 결국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마음이 큰 것 같고 왜 무슨 잘못을 했기에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도 생긴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은 가족은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 무게감도 느끼는 것 같고 식구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에 싸여있는 것 같아요.

멍한 시간이 많고 평소에 눈물도 없던 사람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동생을 먼저 보낼 때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 지금은 길 가다

비슷한 사람만 봐도 눈물을 흘리고 텔레비전 다큐를 보다가도 전혀 슬프지 않은 장면인데도 뭔가에 꽂혀서 눈물을 흘리다 평평 읍니다. 말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제가 뭘 어찌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저녁에 남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보, 나는 우리가 살면서 10년 동안 추억이 하나도 없다. 30대 때는 기억할 만한 게 없고 바로 45살 때로 뛰어넘어 간 것 같아. 이상하지?”라고 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기운이 빠져서는 “나는 기억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 20대 때 내가 너무 망나니처럼 살아서 당신을 힘들게 한 게 후회돼서 혼자 운전하다가도 화가 나. 그런 생각 하면 내가 견디기 힘들 것 같아서 그때의 안 좋은 기억이랑 지금 안 좋은 상황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아~ 그때 남편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 있구나. 그래서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이 하지 않던 인터넷 쇼핑을 시작하더니 비싼 건 아니지만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사는지 모르겠고 사는 건 좋다 쳐도 나중에 뭘 주문했는지 잘 도착한 건지 확인도 안 됩니다. 깜빡깜빡하니까 기억을 잘 못 하는 거죠. 타박도 많이 했는데 지금에서야 알았어요. 남편은 힘든 상황을 풀 곳이 없어서 인터넷 쇼핑을 한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라도 어디에 집중할 수 있고 풀 곳이 있다는 것에 다행이라 생각해야겠죠?

저는 남편이 언제라도 제 곁에 있어 주고 괜찮아질 거라 믿고 있지만 한편으론 걱정됩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남편에게 제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증세는 병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Letter 13

고군분투

양학규 | 충남 홍성군 홍동면

일 마 전 친구가 귀촌한 나에게 시골 생활에 대해 물었다. 문득 읍내에서 요가할 적에 청일점으로 주목받은 일이 떠올랐다. 귀촌 후 체중 증가로 중단했던 수영을 다시 시작했는데 너무 오래 쉬어 몸이 둔해졌기에 요가에 등록했다. 첫날 수업에 들어갔더니 모든 여성 수강생들 시선이 나를 향하더니 곧 웅성거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뒤쪽 맨 구석 자리에 요가 매트를 깔고 앉았다.

요가 선생님께서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반에 남성 수강생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잘 이끌어 주세요” 말하자 사방 팔방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별침이 되어 콧코 찌른다.

숨을 고른 후 찬찬히 둘러보니 진짜 남자는 나 혼자다. 앞쪽과 우측 벽이 거울인데 마치 앞쪽엔 천 길 낭떠러지, 우측 옆엔 칼을 쥐 날쌔 병사들, 뒤와 좌측엔 두꺼운 벽, 완전 소림 36방 진법에 갇힌 듯 진퇴

양난이다.

드디어 강습 시작. 왜 이리 동작이 어려운지 뻗뻗한 몸이 빠그덕거린다. 앞사람 동작을 보고 흉내 내며 쫓아갔다. 나처럼 어설피게 요가를 하는 연세 많은 어머니도 보인다. 비만이거나 연세 많은 분은 설렁설렁 따라간다. 대부분 50~60대다. 내 앞줄에 앉은 여성들은 뒤에 앉은 내가 신경 쓰이는지 흘깃흘깃 나를 쳐다본다. 위로 올라가는 상의 끝자락을 잡아끌어 내리거나 고양이 자세 등 민망한 자세는 동작을 생략한다. 나로 인해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여 죄송스럽다.

첫 강습을 마친 후 요가 선생님을 찾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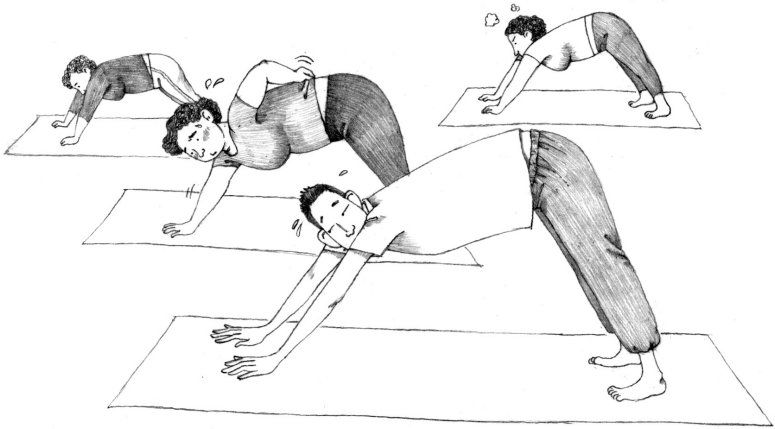
“선생님, 제가 뒤에 앉아 운동하니까 앞에 앉은 분들이 불편해합니다. 다음 강습부터는 맨 앞자리에 앉겠습니다.”

둘째 날은 맨 앞자리 좌측 구석에 자리 잡고 앉았는데 보고 따라 배울 사람이 없어 버벅댔다. 세 번째 날은 강습실 입구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싸늘했다. 나 때문에 언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뒤에 앉으면 내 앞에 앉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내가 앞에 앉으면 앞면 거울을 통해 전체를 보게 되니 거울에 비치는 사람들이 모두 불편해한다. 언쟁의 원흉인 나는 신발 물어뜯고 혼나는 강아지처럼 조용히 있었다.

요가 선생님은 수강생들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한마디 하셨다.

“여기 앉아도 안 된다, 저기 앉아도 안 된다. 그러면 대체 저분은 어디 앉아 운동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처럼 남자분도 운동하러 여기 왔습니다. 각자 본인 운동에 전념하세요.”

‘그만둘까? 한 달은 채울까? 어떻게 하지?’ 곰곰 생각하고 내린 결론은 ‘완벽한 루틴으로 구설수를 없애자!’였다. 퇴근 후 직행하면 강습소에 18시 20분쯤 도착한다. 수업은 19시 시작이니까 미리 맨 뒤 좌측 구



석에 매트를 깔아놓고 헬스장으로 이동하여 가볍게 몸을 풀고 수강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을 18시 55분쯤 강습실에 들어선다. 그래야 수강생들과 눈 접촉을 최대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뒤쪽에 앉으면 바로 앞에 한 분은 불편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분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동작을 하다가 옆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는 거울 없는 쪽을 보면 우측에 앉은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테고 수업 끝나기 5분 전에 미리 매트를 말아놓고 끝나면 손살같이 퇴실하면 여성들과 마주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날부터 강습실에 들어서면 전체를 향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운동에만 집중하고 끝나면 제일 먼저 튀어나

와 집으로 왔다. 그렇게 몇 개월 지나자 회원들의 불만이 사그라들었다. 아마도 내가 꼬박꼬박 출석해 열심히 하니 너그럽게 봐주는 것 같았다.

그런데 회원들이 모르는 점이 하나 있었다. 내가 요가보다 더한 수영장에서 20년을 곳곳하게 수영을 해 왔다는 사실 말이다. 그러니 내 얼굴 두께와 멘탈은 이미 최강이었던 것이다.

어느 날 요가 하는 건물에 도착해 보니 차 지붕 위에 내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아마도 차에 탈 때 휴대폰을 올려놓고 깜박한 모양이었다. 직장에서 요가 건물까지는 7분 정도 소요되는데 과속방지턱과 신호등, 회전 로터리도 있는데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차 지붕에 그대로 있을까 참 신기했다. 이럴 때 가만있으면 감사 예배에 맞지 않으므로 아이스크림 30개를 사서 수강생들에게 돌렸다.

그때 처음으로 정면에 서서 얼굴 들고 모두에게 인사했다. 그렇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10분 동안 나를 한 식구로 받아들여 주는 의식을 치렀다. 그날 이후 내 별명은 ‘아이스크림 오빠’가 되었다. 듣기만 해도 정감 가는 이름이라 좋았다. 그 후 몇 번 더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돌리며 서머한 장벽을 허물자 동료로 대해주어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었다.

코로나가 온 나라를 집어삼킨 후부터 지금까지는 집에서 요가 동작으로 유연성을 유지한다. 어려운 동작을 하면 다리에 경련이 일어 버둥거릴 때도 있는데 아내는 그런 나를 보며 한마디 한다.

“참! 혼자 보기 아까운 풍경일세~”

만약 요가 선생님이 보셨다면 동작을 교정해 주고 칭찬하셨을 텐데...

“나와 2년간 함께 운동하며 불편을 감수해 준 회원님들, 미안하고 염치없고 고맙습니다.”

Letter 14

좋은 어른이란

윤소민 | 서울 강남구

나의 첫 교직 발령지는 논과 바다가 있는 섬마을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그때 선배 교사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잠 못 이루던 내게 한 에피소드를 전해주었다.

당시 40대였던 K 선생님은 어느 날 논두렁을 걷다가 피우던 담배꽁초를 논으로 휘 던졌다고 한다. 바로 실수한 것을 알아차리고 ‘아차!’ 싶었는데 다행히 그 모습을 본 사람도 없고 스스로 잘못을 모르지도 않았기에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 다짐하며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대신 K 선생님은 반성과 다짐의 의미로 바짓단을 걷어 올리고 신발을 벗고 논으로 들어가 꽁초를 건져 왔다.

‘학생들이 보고 있을 때 하지 못할 행동은 혼자 있을 때도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돌아보며 신념을 되새겼던 K 선생님.

나는 그 에피소드를 들으며 나도 그런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

다. 자기 잘못까지도 즉시 바로잡는 용기 있는 교사 말이다.

나는 첫 발령지에서 교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고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발령까지 받으며 교직 생활이 이어졌다. 그날은 무척 지치고 힘든 날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운 좋게 자리에 앉아 눈을 붙이고 잠깐 쉬려는데 갑자기 ‘윙’ 하는 소리와 함께 휠체어 한 대가 열차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달려온다.

‘와~ 저러다가 부딪히면 누구 한 명 다치겠는데?’

휠체어는 내 자리를 조금 지나서 멈춰 섰다.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여성분이었다. 그분은 휠체어에서 엉거주춤 일어서더니 갑자기 종이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제일 가까운 자리부터 그들의 가방이나 무릎 위에 코팅 종이를 올려놓는 거다. 중얼중얼 말소리를 들어보니 본인이 어렵게 수술을 마쳤는데 살아갈 여력이 없다며 도와달라는 호소문인가 보다. 내가 종이를 받을 순서가 되었을 때 나는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조금은 통명스럽고 화난 어투로 말했다.

“놓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종이를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자기 휠체어로 돌아갔다. 위험한 속도로 달려온 휠체어, 무릎 위에 던지듯 놓아진 종이, 그것도 얼마나 많은 세균이 묻어있을까 싶은 찻집한 코팅 종이. 놀려 있는 짜증이 폭발했다. 그래서 나는 그 불쾌한 종이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다. 잠시 뒤 휠체어 주인은 자신이 나눠준 종이를 순서대로 회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가 내 자리 가까이 왔을 때 왼쪽에 앉아 있던 청년이 내가 떨어뜨린 종이를 대신 주워주는 게 아닌가. 청년은 내가 상담하고 있는 지안이의 또래로 보였다.

갑자기 나는 지안이가 내게 건네주었던 ‘좋은 어른’이라는 칭찬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별칭과 지금 나의 행동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를 생각하자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그 열차 칸에서 나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불편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데도 서로 이해하고 잠깐의 불편함을 참아낸 것이다.

나는 학교에서는 친구를 배려하라고 가르치는 교사였고 사랑과 공감으로 내담자를 대하겠다고 다짐하는 상담자였다. 그런 내가 정작 사회적 약자에게 누구나 함직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하지 않았다니 스스로가 위선 덩어리처럼 느껴졌다. 같은 칸에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지. 그 사람이 휠체어를 천천히 운전했다면,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를 풍기지 않았다면, 누가 봐도 깨끗한 종이를 나눠줬다면,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테지. 바람직한 교사, 고매한 학자, 따뜻한 상담자가 되고 싶었다. 나이가 들수록 성숙하여 비록 늙더라도 낡지는 않은 '좋은 어른'이 되려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들어왔고, 나 또한 내가 '좋은 어른'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내가 생각하는 조건을 갖췄을 때만 호의와 선의를 베푸는 얇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누가 보고 있을 때 더욱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려는 가식도 있었다.

어쩌면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눈을 향해 콩초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획 던지고 있었을지 모른다. 지안이의 말처럼 내가 좋은 어른이거나 좋은 어른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콩초를 아예 버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버린 콩초를 직접 건져 오는 용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 용기가 나를 좋은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으며 바짓단을 걷고 맨발로 들어간다.

이달의 손편지

작은 행복

고영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천로

어머니~ 전하기 너무 목소리에 애 난 오듯만 느낀다.
 경기도 화남에서 육성회 전문점은 하는 하나뿐인 우리
 어머니가 전라가 왔다.

장사로 하다보니 영점당인엔 함께 하기가 어렵다
 는 전야제든 치른다 한주전 월요일에 일요일 장사마치고
 출발해서 방새 단려하면 아침 7시쯤 도착이다. 남편은
 늘 말한다 애들 힘들데 모지말라지 근데 애들 생각은
 다르다 힘들게 일해서 가족을 모으려면 이상하게 힘이
 생긴다 한다.

이번 일요일 장사 마치고 내려갑니다. 멋진 재드 들이
 번잡아 운전하면 괜찮아요.

아 ~ 그래 나야 좋지 너희 일조이니. 알겠습니다.
 전라를 타는 그렇게 끝나고 참마포 방상은 난 머릿속으로
 구상했다 최고 좋아하거든 닭고기랑은 좋아하리.

애용하게 해야겠다. 생각 하고 답다리를 서로 양보하나라
못하는건데도 답다리만 사기로 이번엔 견지했다.

참 아들이 파래무침을 좋아하지. 아니 예쁜 정육 장은
좋아하는데. 이게 어미 만민가 가끔씩 나는 애들에게
다래주고 싶었다 내일이면 오겠구나 싶어서 전뽕
완득정하게 사다 냄 장고로 가득 채웠죠 맛있게 먹은
생각만으로 밤을 앓았어는 배가 부르더라구유.

이게 자식 사랑 아니 바보엄마 엄마는 그래서 행복 할까봐유
오기로 한날에 9시쯤 전화가 왔다

엄마 마치고 가려고 준비 했는데 오는 물건을 너무 못팔아서
못내려갈것 같애유. 그래. 아들에 힘없는 목소리에 난
아니야 괜찮아 - 그러구 있자 다음에 어떤 퇴직 명절
내게 뭐라구 난 괜찮애유. 천천히 하고 다음에 보는걸로
하자. 죄송해유. 아니야 죄송하긴 괜찮아 -

전화를 끊고나니 잠이 안오더라구유. 냄장실에 넣었더
답다리를 냉동실로 옮기고 애들이 얼마나 마음이 심란한가
하는 생각에 밤새 뒤척이는데 세교없는 비가 구름구름

내카타가야, 자는 등 마는 등 새벽인데 바깥소리인지 현관문을
 흔들리는건지 현관으로 스키는 소리에 비몽사몽간에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기엔 아들며느리가 서있었습니다. 들어오라는
 말도 못하고 뭘지 하는느낌 끝까지 분명 못은다했는데 하고
 멍~ 때리고 서있으려나. 아들의 엄마~ 저 이것 좀
 받아와 무렵인데 아이참, 짜증섞인 목소리로 그때야
 어찌 왔어 앉으니까 못은다며 어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것부러 받아라고 잔뜩 챙겨온 점심따위로 현관에 내팽개
 친다. 걱정없는 드라마라고 할까. 너무 웃음의 나와서
 난 웃었다. 아들은 탈춤을 겨냥 대파 6원에. 무릎들머를
 간식에 다소부리 했다 손을 잡으러 챙겨왔 타카가야.

실상 짐은 스테로 뚝간듯한 푸짐한 현상에 차림에 아무런
 손은 우리 며느리는 단정할 다니까.

거카이에 동생이 사는데 시이모넛까지 계산물은 푸짐하게
 챙겨왔. 동생은 내외와 우리 부부 아들부부 셋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합다리 황어 소주와 잘 망신껏 전배를
 하고 포트를 짜서 웃는이로 했다.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지 열년 동안 웃은건 하루에 다섯댓 나라인,
 먹고 놀고 이게 추억이지 뭐겠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 추억이랄까 두근두근 생각이 납니다
 그저 가깝이란 말로 하게 하는것만으로 큰힘이 되었던 같다.
 처음에가 여느리에러 난 특은 했 다 유종 1년기 드문 여느리
 나가 내여느리여서 난 너무 좋다 그리고 마니 사랑한다.
 장사는 환영에 고개가 천명은 만든단다. 너에 큰속으로
 퍼주는거 좋아해서 너희들은 기특 성공한꺼야. 퍼줘서
 망한점은 없 다려바. 여느리가 채겨온 대파뽕치에 가끔
 물러 부어주니 새싹이 크고 윗어유 느긋게 아가 파꽃이
 피겠갈데유 작지만 큰행복 여성시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합니다. 나이들어감에 작은것도 행복이라 느끼고
 살아줍니다. 늘 주분을 의우듯 감사 하며 살아줍니다
 감사 합니다. 행복 합니다

(추신) 웃은다고 흥화 하고 1시간에 하루 팔물량은 다 팔고
 왔다네유. 자식의 부모생각 하는건 하늘이 도우주는건
 아닐까 싶네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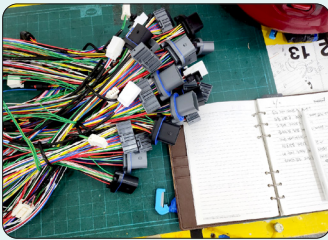
여성시대 사진방



[2659] 연근 작업장입니다.



[7829] 양파작업 현장입니다.



[6167] 여성시대 들으며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 습니다. 문자나 미니 보널 걸 미리미리 적어둡 니다. 생각 정리도 잘 되고 손으로 글을 쓰니 기 분도 좋습니다



[7151] 외딴 자두밭에서 적막하게 일하는 저에 게 여성시대는 더위도 힘든 것도 잊게 해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6787] 여성시대 행복시대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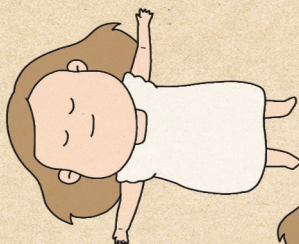
전북 정읍시 문화동

여성시대 가족 이경자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각방을 쓴 지 5년 차에 접어든 우리 부부



혼자 가로로 눕고,



세로로 눕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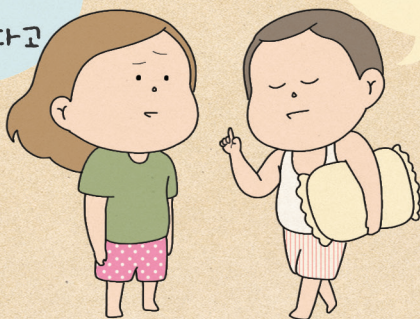


대각선으로 다리를 쪽 편채
널찍하게 잠을 자다 보면
수면의 질이 얼마나 좋아지는지요.

하지만 이런 우기가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아니 냉난방비가
나와봤자
얼마나 한다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거야.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됩니다.

출산 이후 체질이 변했는지
더위와 추위를 못 참는 괴이한 체질이 되어버린 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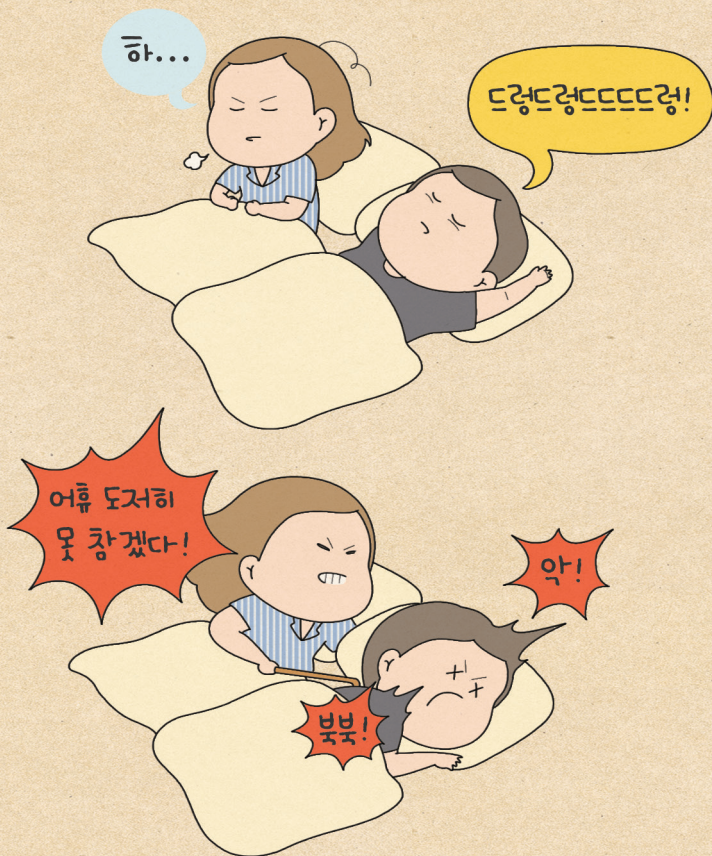


너무 더워
에어컨 좀 켜자.

난 추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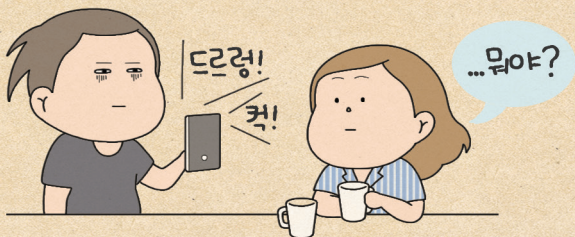
남편과의 온도차가 있는 터라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건 이뿐이 아닙니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남편의 코골이!



결국 참을 수 없어진 저는
효자손으로 남편의 등을 북 북 북!

그렇게 휴대폰 공격 이후 비로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저에게
다음날 아침 부스스한 얼굴을 한 남편이 휴대폰을 내밉니다.



저희 부부의 여름은 이렇게 또 소란스레 흘러갑니다.



물 샐 틈 없는 보안으로 고객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다

IBK기업은행 하남풍산지점 거래고객

(주)인씨스 남현식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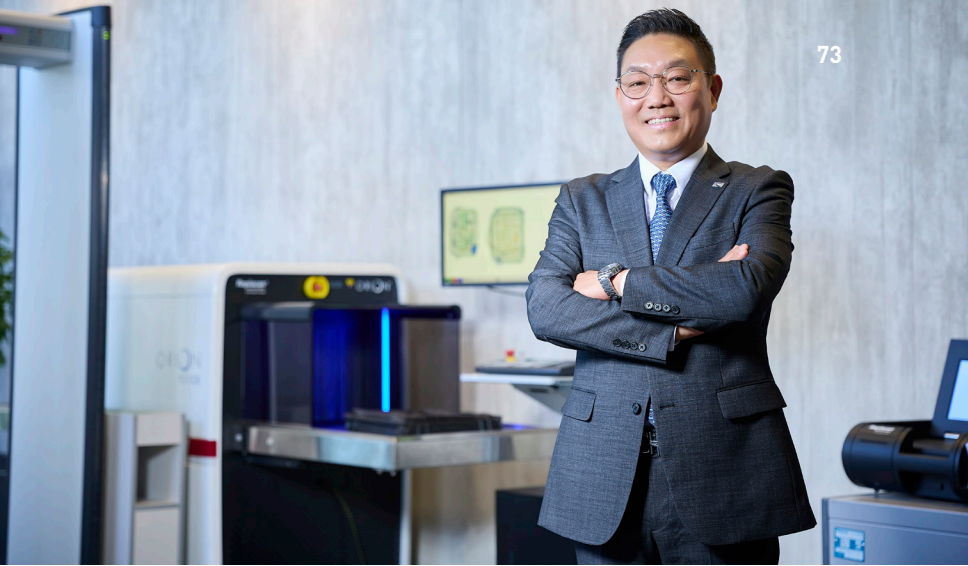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기술과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강화되고 세계 곳곳에 테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보안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주)인씨스는 공항 이외에도 기업이나 관공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서도 개인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여 보안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주)인씨스는 보안 검색 장비 및 테러 장비 전문기업이다.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보안이라는 개념이 물리적 보안에서 정보 보안까지 포괄하는 영역으로 확대되어 보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인씨스는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발맞춰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적의 보안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인씨스는 보안검색장비인 X-Ray

검색기, 문형금속탐지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액체폭발물탐지기와 통합보안시스템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물리 보안과 정보보안 솔루션의 요구분석, 컨설팅, 시스템 설계 및 공급, 설치 및 통합시험, 운영지원,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정부청사(서울, 세종, 과천, 대전)를 비롯해 인천공항 및 전국 주요 공항, 관세청, 법무부 등 공공기관에 검색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 주요 시설과 중요



행사, 민간기업의 보안 검색 장비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도 수행한다.

인씨스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에 본사를 비롯해 인천공항, 제주공항, 부산, 오창 등에 지역사무실을 두고 검색 장비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현식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지금을 이렇게 말한다.

“원래 다른 회사에서 공항화물검색 엑스레이장치 영업 총괄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우리나라 IT가 발달하면서 기업의 IT 기술 유출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며 기업 쪽

에서도 보안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보안 장비는 공항에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기업에서도 공항에서 사용하는 보안 장비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기업에서는 USB 등 작은 정보 매체들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기업 정보 보호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검색 장비와 함께 보급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민간기업뿐 아니라 정부기관에서도 저희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장비 업계는 무척 좁다. 방사



선 발생 장치가 내장된 장비라 안전과 성능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고 제품의 품질력이 보장되어야 하는 탓에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6 개 정도의 메이저급 회사가 있고 그 중 3개 정도의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매년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되었지만 인씨수도 창업부터 쉽지 않았다. 무역, 영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 직접 찾아다니며 인재를 영입해야 했고, 회사가 꾸러진 이후에는 신생 중소기업 제품을 어필

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안장비 특성상 장비의 성능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비교적 이르게 제품의 성능과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업계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남현식 대표는 “인씨수라는 회사명에는 사람 인(人)자가 가장 처음 들어 갑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무언가 이루고 싶어도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간의 협력과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씨의 최우선 가치와 자원은 사람입니



다”라고 말한다.

인씨스는 앞으로 보안 장비뿐 아니라 보안 솔루션을 설계하고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통합 보안 전문회사를 꿈꾼다. 남현식 대표는 함께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에 성공을 확신한다.

IBK기업은행 하남풍산지점 이대범

지점장은 “인씨스는 최근 사옥을 지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복지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젊은 기업”이라며 “지금도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유망기업이지만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기업으로 IBK기업은행이 계속해서 인씨스의 성장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인씨스 남현식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하남풍산지점 이대범 지점장

❗ (주)인씨스 남현식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기술력으로 승부하라.
2.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라.
3. 함께 일하는 사람이 가장 큰 가치다.

(주)인씨스

대 표 남현식
전 화 02-508-2993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 60
홈페이지 <http://www.in-sis.com/>



건축물에 옷을 입히다

IBK기업은행 삼성동지점 거래고객

(주)팍스유엔에이 송민아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멋지고 독특한 외관의 건물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유일의 파사드 전문 디자인 회사 (주)팍스유엔에이는 기술력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글로벌 기업을 꿈꾼다.

팍스유엔에이는 파사드 전문 디자인 회사다. 파사드 디자인이란 건물 외관을 구성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벽 사인물뿐 아니라 외관의 창문 형태, 어닝, 외부 조형물, 문주 등 여러 요소가 합쳐져 하나의 파사드를 이룬다. 팍스유엔에이는 건물의 외부 디자인뿐 아니라 실내인테리어, 공공시설물 디자인 등 건축 디자인 및 설계, 해외 건설사 및 유명 예술가와의 협업도 진행 중이다.

송민아 대표는 대학에서 순수 서양미술을 전공했다. 미술이 좋아 전공을 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추상화나 기타 예술 작품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의문이 생겼다. 1,000명의 사람 중 999명이 이해 못 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하는 의문을 품던 중 해외여행에서 상당 건축 디자인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진짜 예술은 건축물이라는 생각에 건축 디자인에 관심을 갖



게 되었다. 이후 조경 회사에 들어가 아파트 외부 조형물을 담당했고 현장 소장들과 만나면서 영역을 넓혀갔다. 송민아 대표는 당시 아파트를 지을 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문주와 외벽 디자인 등을 제안했고 한 건설사에서 오케이를 하면서 국내 최초로 문주와 동 출입구, 아파트 측벽 등에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런 디자인 덕분에 해당 아파트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지금은 문주나 아파트 측벽 등의 디자인이 대중화되었다.

“단순히 건설사의 하청을 받아 디자인만 해주는 것이 아닌 완벽한 파

사드 전문 디자인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디자인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전기선이나 소방법 등에 맞지 않으면 실제로 구현하기가 힘들어요. 그 때문에 디자인을 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실현할 방법까지 찾아주는 것이 저희 회사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법적 제재 사항이 많다 보니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에 한계가 있다. 또한 건물을 지으면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도 크다. 그래서 창의적인 직업인 디자이너들도 건축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는 보수적이고 기존의 것을 답습하려는 경향이 있다. 송민아 대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계속 미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전시도 하고요. 직원들에게 자극이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순수 미술은 실용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예술품인데 그런 걸 하는 대표를 보면 좀 더 새로운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직원들이 다소 엉뚱한 아이디어

를 제시해도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팍스유엔에이에서는 남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편잔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높은 초과 점수를 준다.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늘 새로울 수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 주요 시설물이 세워지면 국내 건설사가 아닌 해외 유명 건설사가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예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지도 때문이죠. 국내건 해외건 주요한 시설물이 건설 될 때 팩스유엔에이를 떠올릴 수 있도록 글로벌한 파사드 전문 디자인 회사로 성장하고 싶어요”

IBK기업은행 삼성동지점 김치곤

지점장은 “팩스유엔에이는 창업 5년 만에 업계에서 인정받아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글로벌 회사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이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주)팩스유엔에이 송민아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삼성동지점 김치곤 지점장

! (주)팩스유엔에이 송민아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하라.
2. 먼저 디자인한 후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라.
3. 기술력과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주)팩스유엔에이

대표 송민아
전화 02-2038-2033

홈페이지 <http://www.designpax.co.kr/>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8길 24, B동 1~5층

코너 속 편지

사랑 사랑 사랑

- 81 빛나간 사랑의 테니스공
- 85 우리들의 사랑
- 88 재혼 말고 연애
- 91 새로운 시작

이 사람이 버는 세상

- 95 이야기 할머니
- 98 목욕탕 청소
- 100 강사가 되는 길
- 103 요양보호사 양성
- 105 묘지 안내원
- 108 식품회사 미화원

일러스트 | 조신애



사랑 사랑 사랑

빛나간 사랑의 테니스공

애청자

3년 동안 남자 고등학교를 다니며 저는 새콤달콤하고 아웅다웅한 캠퍼스 안에서의 사랑을 꿈꿨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새내기 시절을 기대했건만 막상 스무 살이 되니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3월에 열린 첫 과모임이 화근이었습니다. 인연을 만나겠다는 의욕이 앞서 저는 처음부터 눈길이 갔던 한 여학생 옆자리에 앉았죠.

“안녕? 나는 ○○이라고 해. 우리 같은 과인데 잘 지내자!”

그 여학생은 미묘한 표정을 짓더니 아무 말 없이 다른 자리로 가버리더라고요. 주변의 남학생들은 킥킥 웃기 시작했고 남은 여학생들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고등학교 3년 내내 여학생을 만나본 적 없는 제가 뭘 하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걸까요.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대학생의 본분을 다하자! 책이라도 열심히 읽는 거야!’

저는 시간만 나면 도서관으로 달려갔고 책장에 꽂혀있는 책을 한 칸씩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휴게실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그 과모임에서 저를 피해 다른 자리로 가버린 여학생 희영이었습니다. 멧쩍은 마음에 꾸벅 목인사를 하고 지나가려는 순간.

“야! 같이 음료수나 해~”

당황한 저는 “어어 그래~” 하며 희영이에게 다가갔죠.

“그날은 미안했다. 나도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당황했나봐. 어쨌든 우리 같은 과인데 계속 어색하게 지낼 순 없잖아. 앞으로 잘 지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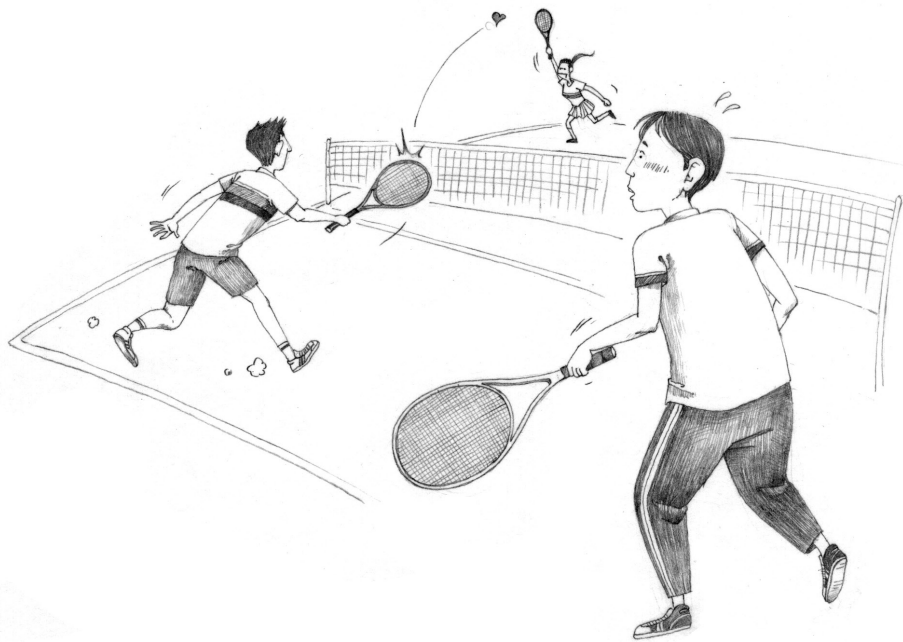
순간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희영이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외딴섬 같은 내게 다가와주다니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그 뒤로 도서관은 안녕이었습니다. 저는 희영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녔고 그녀와 꽤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느꼈을 즈음 희영이는 갑자기 자기 몸만한 테니스 라켓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물어봤죠. 웬 라켓이냐구요. 그녀는 오늘부로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삼촌이 테니스 클럽을 운영했었다며 거짓말을 조금 덧붙여 자연스럽게 같은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에서는 또 다른 난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선배 멋지지 않아? 테니스 정말 잘 친다!”

“좀만 기다려. 내가 저 선배보다 훨씬 잘 치게 될 걸? 너 나한테 한 번만 더 쳐달라고 난리 치면 안돼~”

저는 따로 레슨까지 받으며 밤낮으로 테니스 연습을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은 점점 늘어갔고 희영이와 호흡을 맞추며 제가 멋지게 경기를 할 때면 어깨가 절로 으쓱 했습니다. 그녀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고 동아리의 첫 회식 자리가 잡혔습니다. 갑자기 낮부터 등산 이야기가 나와 다 같이 모여 일렬로 산을 오르는데 생각보다 길이 험해 한두 명씩 나가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테니스를 잘 치던 그 선배, 희영이가 감탄했던 바로 그 선배가 혼자서 산을 척척 오르는데 희영이도 지치는 기색 없이 뒤에 딱 붙어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새 둘은 제 시야에서 사라졌고 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희영이는 체력도 좋네~’ 하고 웃어넘겼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더는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은근한 불안감이 저를 부추겼던 것 같아요. 다 같이 몰려간 나이트에서 저는 술기운을 빌려 그녀에게 블루스를 같이 추자고 제안했구요. 그녀의 손을 잡고 용기 내어 말했죠.

“희영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나, 너랑 친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

희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본인도 저라는 사람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는 테니스 선배를 좋아하고 있다고요. 머리를 한 대 세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급히 대화를 마무리하곤 바로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 밤새 울었어요.

그렇게 테니스 동아리에도 나가지 않다가 얼마 후 저는 군대로 도 망쳤습니다. 그동안 희영이와 그 선배가 캠퍼스 커플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마음에는 큰 멍이 들었고 그 멍울이 얼어질 즈음 무사히 전역을 하고 학교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돌아오니 그녀와 선배의 사랑도 끝나있더군요.

영원한 사랑이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루어지지 못한 가슴 속의 뾰족한 첫사랑의 추억은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호기로웠고 충실했고 그만큼 아팠던 마음. 앞으로도 그런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우리들의 사랑

김옥진 | 경남 진주시

봄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던 2월의 마지막 주였다. 남편이 진주에서 가까운 여수로 그것도 1박 2일로 꽃구경을 가잔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니 꼭 꽃구경을 하지 않아도 집을 떠나는 건 뭐든 좋았다. 밥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남이 해주는 밥은 다 맛있고 그 와중에 내가 지은 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과 나는 한 시간 반을 달려 가장 먼저 여수에서 유명하다는 맛집에 도착했다. 나는 줄을 서도 20분 정도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나보다. 30분, 40분... 서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 유달리 맛집을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굳이 기다려보지만 둘러보니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죄다 젊은 사람뿐이야. 그냥 다른 데 가면 어때?”

“괜찮아~ 이왕 줄 선 거 기다려보자.”

마음을 비우고 서 있는데 조금 난감하다. 바로 우리 앞에 줄 선 젊은 청춘남녀 둘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까르르 얘기하다가 갑자기 서로를 껴안고 뽀뽀도 하며 둘만의 세계에 빠져있다. 같이 줄 선 다른 청춘들은 별로 눈길을 주지 않길래 나도 그냥 무심한 척 보아 넘겼지만 속이 불편하다. ‘너희 둘만 있는 곳은 아니잖아? 애정행각은 둘이 있는 곳에서 하지!’ 하다가도 ‘그래, 청춘의 피를 어찌겠어! 참 좋을 때 구나’ 싶었다.

한 시간쯤 기다렸을까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니 사람들이 모두 평화롭고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고 있다. 나는 괜히 앞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떠올라 될 수 있는 한 빨리 먹어 치우고 자리를 비우려 했는데 남편이 말한다.

“우리도 아주 천천히 먹고 가자. 서대회도 하나 시켜서 먹고!”

남편 말대로 기분 좋게 점심을 먹고 배가 부르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 오래 기다리는 동안 마련된 시장기가 더 만족스러운 식사를 만든 것도 같았다.

우리는 바닷가를 걸으며 이런저런 추억을 이야기했다. 한창 청춘일 때 없는 시간을 쪼개 떠난 삼천포 바닷가에서 함께 먹었던 해산물이 가득한 밥상도 떠올린다. 지나간 시간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된다.

속소로 돌아와 우연히 본 TV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다. 할머니들에게 좋아하는 거 다섯 가지를 쓰라고 하니 모두 꽃 이름을 하나씩 쓰는데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한다.

“난 우리 영감도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없어. 하늘나라 갔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쿵 하고 때렸다. 그래, 나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남편이다. 서로 말이 통하며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남편. 내가 아는 세상을 즐기게 해주고 내가 모르는 세상을 새롭게 알려주는 내 남편. 봄이면 같이 꽃구경 가고 여름이면 바다에 가서 배도 타고 가을이면 낙엽을 같이 밟으며 추억을 이야기한다. 겨울이 되면 어묵과 붕어빵을 먹으며 오래전의 학창 시절을 이야기하겠지.

긴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온 우리! 이런 남편과 사는 동안 사랑을 잃지 않고 계절 내내 열심히 나누겠다고 다짐한다. 남편,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

재혼 말고 연애

박진숙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2022년 겨울, 사랑하는 나의 남자친구 느티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퇴직 후 우울증으로 힘겨워하던 시절, 재혼 말고 연애만 하자고 다짐하면서 느티와 제주 한 달살이를 계획한 것이다.

제주살이 열흘째 되던 날 우리는 한라산에 올랐다. 가장 수월하다고 알려진 한라산 영실 탐방로를 통해 남벽 분기점을 찍고 내려오던 중 돌계단에서 오른발이 미끄러져 발목 정강이가 네 동강 나는 사고를 당했다. 나는 119구조대원 10명의 도움을 받아 제주의료원으로 옮겨졌다. 갑자기 생긴 사고로 나보다 느티가 더 놀랐다. 수술은 원주에서 받기로 결정하고 밤새워 운전해서 새벽 2시경에 원주 병원에 도착했다. 느티는 꼼짝없이 보름 넘게 나를 간병했다. 결혼한 두 딸에게는 이런 상황을 알리지 못했다. 엄마가 연애하던 중에 발이 부러졌다고 말하기가 미안했기 때문이다.

느티는 딸이 셋, 이혼한 지 5년 되었는데 재혼을 원했다. 재혼이라는 굴레에 나와 두 딸을 가두는 것 같아 선뜻 재혼에 응하기 어려웠다. 나의 삶이지만 재혼이 자식에게 미칠 영향을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것. 그래서 ‘재혼 말고 연애만 하자’고 제안했고 느티는 그런 나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느티는 안정적인 삶을 꾸러가기 위해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서로에게 책임감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재혼을 권한 것이라고 심중을 표현했다. 그의 마음을 나도 이해했다.

초혼 여행 30년, 순탄한 여행은 아니었으나 남편을 떠나보내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픔이 밀려와서 힘겨웠다. 그러기에 다시 재혼 여행을 시작할 자신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리가 부러진 것은 운명일까? 수없이 자문해 보았다. 다리가 부러진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이기엔 맞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자꾸 다른 마음을 먹으니가 도망가지 말고 보금자리를 잡으라는 것이다.

두 집 살림을 꾸리다가 퇴원 후 도시 생활을 접고 느티와 함께 전원 생활을 시작했다. 내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 느티가 사랑채 앞에 심은 자그마한 에메랄드골드 여섯 그루가 황금빛 미소로 나를 맞았다. 정원을 꾸미고 싶어 하는 나를 위해 밭고랑을 만들어 고구마, 고추, 비트, 상추 등 소소하게 농사지을 준비를 해 두었다. 내가 아플 때도 사랑과 물품 등을 아낌없이 지원해 준 느티. 인생 수업료를 가장 많이 낸 한라산 등반 사고가 전화위복이 되었다. 느티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느티나무가 되어주겠다는 그와 나는 재혼 여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나의 두 딸이 황성 집에 정식으로 인사 오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다. 나의 재혼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여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느티의 세 딸 중 둘째와 막내는 재혼 2년이 넘어서야 횡성 집에 인사 왔다. 재혼은 두 사람만의 연결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새로운 결합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물론 지금도 가족의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황혼에도 내 삶의 주인공이 나인 것을 알아차리고 신혼을 즐기고자 한다.

2024년 3월 30일 작년 늦가을에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왔다. 한 마리가 먼저 날아들더니 곧이어 세 마리의 제비가 “지지배배 지지배배 ~” 작년에 리모델링한 집에 안착했다. 3년 전 나를 만난 해 “제비집에서 떨어진 아기 제비를 보금자리에 올려주었는데 제비가 박씨(박진숙, 나)를 물고 왔다”며 느티가 웃는다.

사랑 사랑 사랑

새로운 시작

애청자

지인으로부터 이상한 연락을 받았다. 자기가 일하는 가게 근처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봤단다. 안 그래도 남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던 참이었다. 그렇게 나는 남편을 미행하게 되었다.

남편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쇼핑몰 근처에 차를 대고 누군가를 기다렸다. 남편은 낯선 승용차가 다가오자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는 여자와 입맞춤을 했다. 그러더니 그 여자와 팔짱을 끼며 길을 건너갔다. 몰래 숨어 있던 나는 남편과 그 여자 앞으로 다가가 사진을 찍었다. 셔터 소리에 놀란 남편이 나를 제지했고 여자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그날은 아들의 결혼식을 한 달 앞둔 날이었다.

집으로 온 남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 같았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남편의 외도가 믿기지 않았고 배신감에 온종일 침대에 누워 눈물만 흘렸다. 지옥 같은 나날이었다.

일단 아들의 결혼식이 지나고 이혼하기로 남편과 합의했다. 아들의 결혼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는 지금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 후 남편과 나는 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혼 날짜를 받았다. 날짜가 적힌 종이를 들고나오는데 손이 바르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주차장에 주저앉고 말았다. 남편은 그런 나를 부축하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남편과 살아온 30년의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려 더 이상 남편을 믿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더구나 우리는 재혼 부부였다.

1남 5녀 외아들인 남편과 재혼해서 사는 일은 쉽지 않았다.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은 남편의 아이들에게 내가 구박이라도 할까 봐 알게 모르게 눈치를 주었다. 마음 편할 날이 없는 30년이었다.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아온 시간이었기에 남편의 외도는 내 인생의 절반이 사라진 절망이었다.

한 달이 지난 후 법원에서 협의이혼 신청서를 받았다. 신청서를 시청에 신고만 하면 남편과 나는 남남이 된다. 신청서를 들고 집으로 와 서랍에 넣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 바로 신고할 수가 없었다.

남편은 헤어지기 전 강원도로 마지막 여행을 다녀오자고 했다. 나는 며칠을 망설였다. 이혼했는데 여행을 함께 가는 것도 이상했다. 이혼한 걸 모르는 아이들은 여행을 다녀오라며 자꾸 부추겼다. 할 수 없이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로 향했다.

남편과 나는 그전에도 2년에 한 번은 강원도로 여행을 왔었다. 어차피 온 여행이니 즐겁게 보내자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남편과 발왕산 전망대에 올라갔다. 세상이 온통 하얀색으로 뒤덮여 신비로웠다. 2년 전에도 그랬었다. 남편을 강원도에서 만났고 아이

들과도 추억이 많은 곳이었다. 남편은 직업군인이었다. 몇 년 동안 강원도 평창군 횡계에서 살았다. 발왕산을 내려와 횡계로 갔다. 살던 집은 개발로 찾아볼 수 없었지만 집 앞의 개울은 그대로였다. 아이들과 물장난을 치고 수박을 썰어 먹으며 한여름을 보낸 곳이었다.

근처에 있는 용평스키장에도 갔다. 아이들과 처음 스키를 배우던 날들이 생각났다. 나는 리프트에서 내리며 제대로 서질 못하고 계속 넘어졌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섰는데 그만 뒤에 온 사람에게 받혀 그대로 뒤로 발라당 넘어졌다. 남편은 나를 안고 스키장에서 내려와 응급실로 향했다. 다행히 별일 없었지만 그때 나를 안고 내려오던 남편 생각이 났다. 옆에서 스키장을 바라보며 웃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정말 다정했던 남편이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눈물이 차올랐다.

스키장을 나와 강릉으로 가기 위해 차에 올랐다. 눈으로 덮인 들판이 나왔다. 남편은 차를 세우더니 내 손을 잡아끌고 들판으로 막 뛰어갔다. 남편과 '나 잡아 봐라' 하며 영화를 찍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아이들과 무릎 위까지 푹푹 빠지며 눈사람을 만들던 생각도 났다. 옛날처럼 들판에 누워 데굴데굴 뒹굴기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했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가슴이 자꾸 아려왔다. 멍치던 눈을 남편에게 던지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영영 소리를 내며 울었다.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줄줄 흘러내렸다. 남편은 내 눈물이 그칠 때까지 나를 품에 안았다.

하룻밤을 묵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운전하는 남편의 간식도 챙기며 주저리주저리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치 이별 여행이 아닌 평소와 다름없는 여행 같았다.

남편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

며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를 놓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와 아이들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했다. 그때 나는 왜 선뜻 대답하지 못했을까. 아마 아직 남편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청에 갈 날짜를 놓쳐버렸다. 지금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동화를 쓰고 있다. 아픔을 잊기 위해 평소에도 늘 쓰던 글을 써서 작가로 등단하였다. 작년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도 출판하였다.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에서 들판을 돌아다니며 푸른 새싹들의 이야기를 동화로 쓰고 있다.

그리고 남편과는 아직 헤어지지 못했다. 친엄마보다 자기를 키워준 내가 진짜 친엄마라고 말해준 아이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며칠 있으면 손녀딸 돌잔치를 한다. 가끔 집에 오는 아들 내외와 손녀를 보면 웃음이 멈추질 않는다. 그때 남편이 나를 잡지 않았으면 예쁜 손녀의 모습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사랑스러운 손녀에게 들려줄 예쁜 동화를 쓰며 지난 아픔을 차츰 잊어가고 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열어질 뿐이다. 아픈 기억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글을 쓸 수도 없었을 것이다.

아픔을 잊기 위해 몰두했던 시간과 지금도 여행을 가자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남편과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한 3년 차 60대 신혼부부이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를 아십니까? 말 그대로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나 선현들의 미담을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들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외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으로 전국에 약 3천 명의 이야기 할머니가 활동하지요.

주민등록상 1950년 1월 1일부터 196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만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초인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신청받고 1차 서류 심사 그리고 2차 면접에 합격해야 하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교육과 6번의 동화 구연에 통과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면접부터 약 9개월간의 교육 기간을 이수해야 최종 합격생이 11



월에 배출됩니다.

최종 합격하면 5년까지 활동할 수 있고 5년 활동이 끝나면 심사를 통해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까지 7년의 활동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원해야 합니다. '이야기 할머니' 호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 남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합격하기까지 먼 여정을 거쳐야 하지만 해마다 이야기 할머니 지원자는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어느 지역은 30: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스개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하려고 삼수한다는 소리도 있어요.

이야기 할머니로 최종 선발되면 다음 해 3월부터 일주일에 동화 한 편을 외우고 습득하여 원아들에게 들려줍니다. 동화 구연을 위해 외워야 하니 치매 걸릴 위험이 낮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배우러 다니는 것이 많아 어른들보다 더 바빠서 조부모와 손자 손녀들이 만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나도 컴퓨터나 휴대폰에 매달려 대화 나누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할머니 옛날 얘기해줘, 무서운 이야기 해줘~” 하고 졸랐는데 요즘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휴대폰만 있으면 혼자서도 잘 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료할 틈도 없어 보여요.

그런 요즘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문명의 기기를 잊고 이야기에 푹 빠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니 이야기를 하는 저도 덩달아 행복합니다. 이 일은 재미있고 감동받을 수 있는 옛날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 함양이나 인성교육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특별한 의미도 있고 한복을 입고 가니 아이들 반응도 참 좋습니다.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려는 아이들 눈망울이 초롱초롱하여 기특하고 흐뭇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이들한테 에너지를 받고 오는 날이 많습니다.

“할머니, 예뻐요.”

“할머니, 머리 모양이 바뀌었어요.”

“할머니, 그런 목소리는 어떻게 나요? 목소리 좋아요.”

“할머니, 오늘 이야기 정말 재미있어요.”

“다음에 얘기 또 해주세요.”

우울했다가도 아이들을 만나고 오면 기분도 좋아지고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저는 올해 2년 차인데 조금의 용돈도 벌 수 있으니 좋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르바이트로 엄마랑 목욕탕 청소를 하고 있어요. 남탕이라 손님이 다 빠지고 나면 밤 10시에 들어가서 쓱싹쓱싹 청소를 시작합니다. 열탕, 온탕, 냉탕의 물을 빼고 냄새 때문에 전날 제조해 두었던 락스 반, 세제 반을 물에 섞어 둔 통에 다시 물을 가득 부어서 바닥을 열심히 밀대로 밀어주면 엄마는 거울과 수조를 수세미로 뽁뽁 문질러 때를 벗겨내요. 그리고 시원하게 호스를 사용해서 물청소를 합니다.

처음에는 안 쓰던 근육을 써서 온몸이 아프기도 했는데 지금은 나름 베테랑이 되었어요.

힘든 점은 오늘 들어가면 내일 나와야 한다는 점과 쉬는 날 없이 매일 출근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몸이 조금 피곤한 것 말고는 특별하게 힘든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장점은 운동 마치고 난 후라 저도 씻어야 하는데 1시간 반 남짓 청소를 하고 나면 뜨끈한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와서 기분이 좋고 뒤돌아서 말끔해진 탕을 보면 그 개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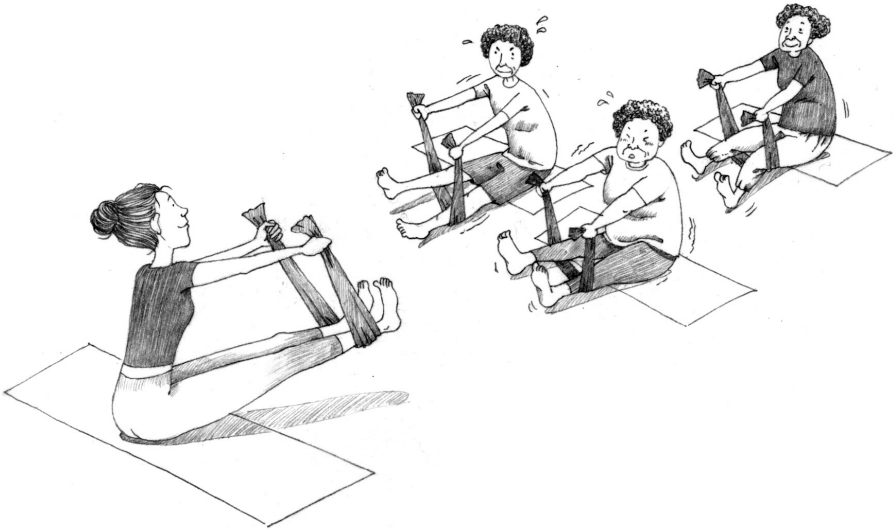
그리고 집에서 목욕할 일이 없으니 우리 집 온수비도 아끼고 물때가 끼질 않으니 집 욕실 청소도 자주 안 해도 돼 좋아요. 목욕탕 청소 아르바이트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여성시대 담당이들에게 필라테스 강사 되는 법과 건강보험공단의 운동 강사 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물리치료사로 요양병원에서 6년, 정형외과에서 4년, 모두 10년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기간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다양하고 협회마다 수강료도 10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 싶은 분은 자격증 취득 기간, 금액, 교육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직업이니까 해부학을 배우는 과정이 있고 다양한 기구를 사용하는지 교육 강사들이 체육학과 출신인지 물리치료사 출신인지 따져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필라테스 운동의



특성상 재활을 위해 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라테스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관련 워크숍도 가야 하고 실력 좋고 경험 많은 선생님에게 계속 배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운동도 해야 합니다.

저는 필라테스로 전업한 지 8년 차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자녀를 학교 보내고 오전에 운동하는 어머니들이 주로 오시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는 퇴근한 직장인들이 오십니다.

점심시간부터 4시까지의 수업이 없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

거나 아이들 간식을 챙겨줍니다. 수업이 없는 날엔 아이들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 병원 일을 그만두고 전업한 이유도 아이들 때문입니다.

필라테스는 근무시간이 짧고 제가 스케줄을 짤 수 있어요. 하지만 수업이 없으면 수입이 적어지고 퇴직금이 없습니다. 필라테스는 수업을 진행한 만큼 타임제로 보수를 받거든요. 금액도 다양해서 성수기에 하루 8타임 하면 4백만 원 이상을 벌지만 요즘은 필라테스센터도 많이 생겨서 경쟁이 심하고 경기가 어려워져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점심시간에도 수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백세운동교실 강사'에 지원했습니다.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서 운동을 지도하는 백세 운동 강사는 3월에 모집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정됩니다. 공단과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운동한 타임만큼 보수를 받습니다. 이쪽은 에어로빅 강사나 요가 강사들이 많습니다.

백세 운동 강사에 선발된 저는 점심시간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백세 운동을 진행하는데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과 음악에 맞춰 체조를 지도합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 병원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버 운동 쪽이 전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노인 관련 운동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면 좋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나 노인체육지도자 자격을 준비하세요. 저도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나 백세 운동 강사의 장점은 시간 조절이 용이하고 정년이 없고 내 건강도 같이 챙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실업급여나 퇴직금이 없고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 우리 같이 체육지도자가 되어 보아요.



저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 들으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분들도 있고 따려는 분들과 권하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겸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요즘 노인 돌봄을 책임지는 요양보호사가 전국 곳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우선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240시간의 교육과 80시간의 현장 실습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합격률은 평균 80% 이상이니 교육만 성실히 받으면 대부분 합격할 수 있고 시험은 수시로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되고 나면 취업하는 곳은 크게 세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째, 요양원 근무입니다. 요양원 근무는 주로 3교대로 일요일이나 야간에도 순환제로 근무해야 합니다. 급여는 230만 원에서 240만 원 수준입니다.

둘째, 재가센터 방문요양입니다. 흔히들 ‘재가’라고 부르는데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 어르신의 일상생활부터 신체활동 등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무는 한 분의 어르신에게 3시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오전이나 오후 3시간 1타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계발 또는 자기 집안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과 생활, 자기관리를 모두 할 수 있으니 중년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종입니다. 급여는 주로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시급 12,500원 수준입니다.

셋째는 가족 요양입니다. 자기 가족 중에 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가 있으면 자기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은 1일 1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배우자를 케어할 경우에는 30일 내내 1시간 30분씩 인정받아 한 달에 70만 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저희 교육생들의 취업 후 반응은 매우 만족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사회복지 5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도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기관에서 근무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은 노동부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받는 동안에 식대, 교통비 등도 지원해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인근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문의하시면 국비 지원과 교육, 시험, 취업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인력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외국 인력 수입을 검토할 정도로 마음만 있으면 자리는 많고 재가요양보호사 자리는 대상자가 친구 같은 요양보호사를 희망하는 경우도 많아서 70대도 취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자리에 대해 이제 잘 아시겠지요?



“이보다 만족할 순 없다!”

이 말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제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직업이란 돈벌이 수단이 되게 마련인데 이왕지사 그 직업에 만족한다면 이보다 좋을 순 없겠지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매우 만족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행복할 수밖에요.

저는 햇수로 15년 차 국립5·18민주묘지 안내원입니다. 이곳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모시고 있는데 조경, 환경, 시설, 청경, 안내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며 방문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참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내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묘지 안내원이라니 생소하실 텐

데 묘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5·18묘지를 소개하는 일이지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해설도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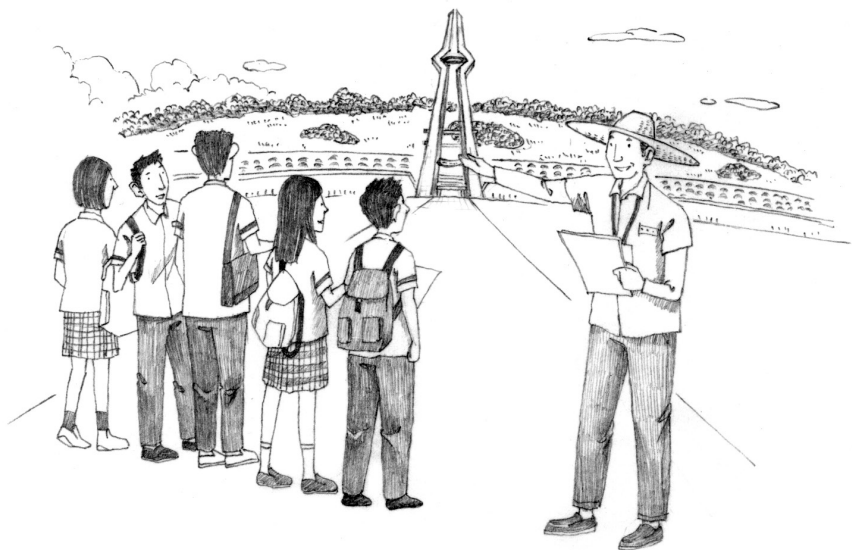
5·18민주화운동이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역사의 현장이라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많이 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일반인, 외국에서까지 많은 사람이 오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44년 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요즘 뜨고 있는 역사 해설사처럼 해설사 역할도 하고 거기 더해해서 참배 의전도 합니다. 누구라도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의전을 도와드립니다. 5·18민주화운동을 잘 몰랐는데 제 해설을 듣고 잘 알게 됐다고 하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듯싶어 정말 행복합니다.

제 일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전국에서 오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여성시대 진행자였던 손숙 선생님이 안내했는데 참배 의전을 돕고 묘지에 가서 돌아가신 분 사연을 들려드렸을 때 손숙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안내원의 역할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오시니 근처 맛집과 볼거리 등을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공연과 문화 행사까지 꿰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면 여행의 재미가 배가 될 겁니다.

묘지까지 오는 버스가 518번 딱 하나인데 배차 간격이 넓어서 참배객들에게는 버스 시간도 알려드립니다. 땡벌에 나가서 혹은 비바람 몰아치는 날 안내를 할 때도 있지만 도심과 떨어져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근무 환경도 좋습니다.

또 야근이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물론 어찌다 늦게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는 데 몰입하다가 늦을 때도 있지만 거지반 정시 퇴근, 칼퇴



입니다.

공기가 좋은 곳이라 저는 일찍 출근해서 묘지 근처 둘레길을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역사의 현장 국립5·18민주묘지에 오시거든 꼭 해설을 듣고 가세요. 또 시간을 여유 있게 잡으세요. 오래 머물러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단체로 오거든 예약하시고 참배, 해설과 영상까지 보고 가세요. 5월 18일에는 광주의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은 무료랍니다. 오월 광주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환대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예요. 묘지 안내원, 저는 지금 매우 만족합니다.



저는 67세인데 식품회사에서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식당을 운영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불경기 때문에 과감하게 가게를 접었습니다. 한두 달쯤 쉬다가 관공서에 채용되었는데 두 달 반 만에 계약 만료. 다시 안사람이랑 여행도 하고 맛집도 다녀보았지만 그것도 두어 달 되니 일할 때보다 더 힘들더군요.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다가 식품 회사 실내 미화원으로 취직하게 됐어요.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인데 주 6일 근무라 토요일은 11시까지 근무합니다. 식품 저장하는 곳이라 일 년 내내 섭씨 3도의 온도를 유지해요. 그래서 추위에 약한 저는 내복은 물론 티셔츠 두 겹에 패딩까지 입고 근무합니다. 또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박스를 아주 빠른 속도로 두 시간쯤 치우는 일부터 시작하는데 었드렸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다 보니 어깨가 빠져나갈 듯한 통증에 파스랑 진통제를 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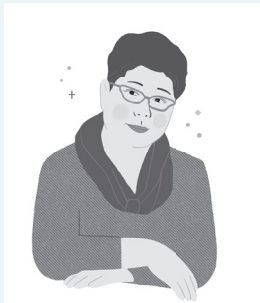
습니다.

안사람이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자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중간중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 복지도 좋고 식품도 가끔 쥐서 집 반찬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으니 좋아요.

식당할 때는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니 두 딸 용돈도 줬는데 월급으로는 그렇게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월급이 난생처음 입금된 걸 보았을 때는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했는지 몰라요. 아내는 제가 힘들게 번다고 제 통장 월급에는 손도 안 댁니다. 아픈 몸으로 내조를 잘 해주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네요. 이참에 사랑한다는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세 번의 결혼식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6월에는 세 번이나 결혼식에 갔었다.

첫 번째 6월의 신부는 2년 전 요리 교실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수줍게 인사하며 말도 잘 안 해서 몰랐는데 일본에서 온 교포였다. 요리 수업 첫째 날, 수업을 마치고 노영희 선생님께서 그날 만든 요리를 막내인 그분께 챙겨주셨다. 두 번째 수업 날에 ‘그 맛난 요리 작품을 누구와 나눠 잡셨을까?’ 다들 궁금해하니, 소개팅한 남자분께 드렸다고 ‘아마 그분은 제가 만든 걸로 아실 거라고’ 말했다.

우리들은 두 사람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했고 2년이 지난 며칠 전, 도시락을 받은 그분과 결혼해서 요리 교실 동창들이 테이블 하나를 차지하고 식장에 앉아 있었다.

신부 아버님은 “뉴욕의 그 대단한 주재원 자리를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와서 아픈 엄마 곁을 지키며 친구도 해주고 건강을 되찾기까지 애를 써주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 덕분이다”라고 축사



를 하셨다.

신부 어머니가 너무 야위셨다 싶었는데 편찮으셨던 거였다. 우리 중늬은이들은 신부 아버님 말씀에 다들 훌쩍거리며 “그런 딸이었구나. 요즘 자기 이력을 아무렇지 않게 포기하고 엄마 곁으로 와주는 딸이 어딴냐~”며 감동해서 울고 또 우는 모습을 서로 보며 웃고 좋은 시간이었다.

두 번째는 ‘단결, 필승, 충성’ 군 시절 얘기를 편지로 받아 19년 동안 남성시대와 함께해 준 참모병장 장용 씨 외아들의 결혼식이었는데 신랑 입장부터가 달랐다. 부자지간에 상큼 발랄한 춤을 추며 입장했고 두 사람의 합과 호흡이 딱 맞아떨어져서 보기가 정말 좋았다.

주례 대신 장용 씨의 축사는 부부가 어차피 연예계 일을 함께 하니 가나긴 기다림이 필요한 일이고 그 시간 동안 지루하게 보내지 말라는 연예계 선배로서의 말씀이었다.

축가는 3번 있었지만 뻘하지 않은 격조 높은 시간이었다. 여태 보았던 결혼식 중 최고였고 압권이었고 가슴에 따스함이 있었다.

세 번째 결혼식은 7년을 함께한 내 매니저의 주례로서 참석을 했고, 2년 가까이 지켜본 신랑 신부 사이의 얘기를 대신 전했다. 새벽에 목욕재계하고 앉아 주례사를 쓰는데 정호승 시인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란 시가 떠올랐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했기에 / 이토록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나 / 우리가 어느 별에서 헤어졌기에 / 이토록 흔들여 새벽을 깨우는가.’

‘신부는 남편의 편이 되고 맛있는 밥을 해주겠다, 신랑은 늘 지켜주는 든든한 남편이 되겠다.’ 다짐했다.

신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늘 같은 시간에 모닝콜을 해주고 퇴근 후에 늘 바래다주는 한결같은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하겠다며 결혼을 결심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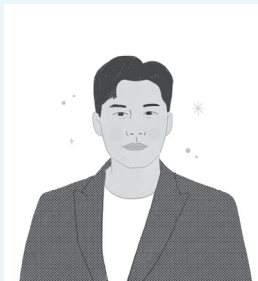
참 놀라운 인연 아닌가? 지구상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이때 이 사람을 만나 일가를 이루는 각별한 인연을 맺는가? 참 묘하고도 묘한 일이다. 주례를 마치고 38년 전 나의 결혼 과정을 되돌아보기도 한 시간이었다.

6월에 참석한 세 번의 결혼식 보고 끝!



산 vs 바다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이미 지난달부터 더워졌지만 이제 진짜 여름이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추운 겨울엔 더운 여름이 그립고 찌는 듯한 여름엔 입김 나오는 겨울이 좋아지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여름을 신나게 즐겨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여름방학에 맞춰 어디든 피서를 떠나야 할 테니 말이다. 피서지를 고를 때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둘 중의 하나를 정해야 한다. 바로 산으로 갈 것이냐 바다로 갈 것이냐! 이견 마치 짜장이나 짬뽕이냐, 부먹이냐 짬뽕이냐처럼 각자의 취향이 확실할 순 있지만 그럼에도 또 고민이다.

그래 결심했어! 여름엔 나무가 우거진 산으로 가야지! 그래야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상쾌한 공기도 마시며 더위를 피할 수 있지. 거기다가 흐르는 계곡물에 발만 담가도 아이 차가워! 바닷물처럼 짜지도 않고 모래범벅이 될 일도 없고 얼마나 깔끔해. 그리고 뭐 산이라고 꼭 높은 산만 올라야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국토의 70%가 산인데 가까운 주변에만 가도 적당한 높이에 수풀이 우거진 산들이 많거든. 산

보하듯 그 안에 들어가면 띄약별도 없고 여기저기 지저귀는 새소리에 산들바람. 벌써부터 힐링된다. 또 자연의 초록빛을 많이 봐야 우리 눈에도 좋다잖아. 숲속에 있는 캠핑장은 또 얼마나 좋아. 아이들도 그런 자연 속에서 맘껏 뛰어놀아야지. 좋았어 이번 여름은 산이다!

그래 결심했어! 여름엔 역시 시원한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로 가야지! 온갖 여름 노래들이 산이 아닌 바다를 찾는 텐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니까. 해변의 여인, 바다의 왕자 등등 두말하면 입 아프지. 형형색색 수영복 입고 간질간질 모래 해변을 뛰어서 바다로 풍덩 뛰어드는 그 느낌이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있고 바다마다 특징이 있어서 너무 좋지. 서해는 밀물 썰물이 있으니 얇은 수심에 조개도 캐고 머드팩으로 피부 관리까지 얼마나 좋아. 남해는 진짜 섬도 많고 잔잔한 물결에 맞집도 얼마나 많은지. 동해는 말해 뭐해! 넘실대는 파도에 튜브 타고 몸을 맡기면 놀이동산이 따로 없지! 그렇게 물놀이 하고 먹는 라면의 맛이란. 짹. 점심은 그렇게 간단하게 먹는 거야. 저녁엔 푸짐하게 바다에 왔으니 회 한 접시 먹어야 하지 않겠어? 그러곤 다시 깜깜한 해변으로 가서 가만히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면 석 달 치 피로가 싹! 그래 이번 여름은 바다다!

과연 올여름 우리 당당이 분들의 선택은?!



IBK기업은행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승계, 경영 전변의 맞춤형 컨설팅

IBK 컨설팅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중개·주선 지원

M&A 생태계 조성

본행사의 상품 제공은 2023.08.01부터 2025.07.31까지 유효하며, 2025.08.01 이후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상품사외신청서 및 인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금융 활동을 영위합니다. 본기업은행의 별도 서비스나 개인별 필요 조건에 따라 일부 상품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 1522-1992, e-mail: ibkcs@ibk.com)



IBK 기업은행

IBK 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결 제2024-4560호(2024.03.20) 금융거래(2025.03.19) · 대출통로 BOX 관련 자세한 문의는 BOX고객센터(02-726-7633) 혹은 IBK고객센터(1544-2569)로 연락 바랍니다. · 신청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에 관련된 불이익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장기간 대출 완료를 면제할 경우, 모든 완료를 반복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회금이 부정확한 경우(잔액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불리, 담보충족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율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BOX 대출통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환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당첨 가격 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O2O

온라인으로 신청한 해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ONE-STOP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